

찬란한 옥과 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 같이 닳히고 닳려
영도에 날고 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 내는 경남고교

‘박종찬 시대’의 열정단합, ‘박성철 시대’에 지속을

2020년 ‘용마의 밤’총동창회장 이취임식 15일 개최
용마대상 비롯, 공로패·감사패 등 수상자 22명 발표

등급별 기부자 감사패도 전달... 용마골프대회 시상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박성철(29회) 차기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제36·37대 총동창회장의 시대가 역사의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다. 경남중고 동문들의 오랜 숙원이던 동창회관 건립을 이뤄낸 주인공으로서 그 족적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 분명하다. 그가 이룩한 많은 성취들이 경남중고 동문회에는 영구한 윤회유로 작동할 것이며, 그가 쌓은 용마의 자부심은 동문들의 저력으로 승화될 것이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차기 제38대 박성철(29회) 총동창회장의 시대가 여명을 밝히고 있다. 박

종찬 총동창회장이 다져놓은 동문회 활성화 기세가 탄력을 받아 더욱 번성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부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모교 80년사 편찬사업 지

원, 경남고 이태석 신부 주모공원 조성, 덕형관의 역사박물관 전환 등 만만찮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동문들의 지지와 성원이 총동창회 발전의 초석이자 동력이다.

총동창회는 12월 15일 용마의 밤 행사를 서면 롯데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진다. 이날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시작될 예정이다. 총동창회 사무총장 인선을 비롯, 집행부 구성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일 가질 예정이었던 다가 코로나19 방역 단계 상승으로 연기되었다. <기사 2면에 넘김>



역사를 찾습니다
경남고 덕형관내
설치된 모교 80
년사 편집실 정
경. 각 책상마다
연도별 자료를 수
집해 정리해두고
있다. <사진=윤
원욱(39회) 영상
편집위원>

2020년 용마대상 수상자 남진현(19회) 초대 총동창회관장

남진현(19회) 초대 총동창회관장이 2020년 용마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제16회 수상자 배출이다. 지난 10월 28일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다. 남 수상자는 경남중고 총동창회 임원으로 35년간이나 활동하면서 총동창회 발전에 노력했고, 총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휘감독하며 원가절감에 크게 기여했고, 총동창회관 초대관장으로서 운영의 기틀을 닦았고, 그동안 자문위원장으로선 선배기수와 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등 공적이 확연했다.

남 수상자는 “수많은 훌륭한 인재 동문들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 영예의 대상을 받아 송구하다”면서도 “동창회관 건립 등 총동창회의 르네상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스를 연 박종찬 회장으로 부터 영광스러운 용마대상을 받아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 수상자에게

는 상패와 황금열쇠가 수여된다.

지금까지 역대 용마대상자(기수, 수상 연도)는, 김근준(1회, 1991년) 김영삼(3회, 1992년) 정동식(1회, 1993년) 권오현(1회, 1994년) 송두호(3회, 1995년) 이희문(6회, 1996년) 정상천(4회, 1997년) 우명수(5회, 1998년) 김형석(16회, 2001년) 김경희(9회, 2002년) 박종구(5회, 2003년) 박재상(22회, 2005년) 구본능(21회, 2009년) 안강태(11회, 2012년) 김영기(23회, 2017년) 동문 등이다.

모교 80년사 자료 수집 공고

총동창회는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박종찬 총동창회장)를 지난 8월 15일 출범시켰습니다. 2022년 4월 25일 발간을 목표로 모교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난관도 있습니다.

경남중고 모교에 보관된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많은 기간에 걸쳐 자료 부실 혹은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자료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교 80년사 편찬은 경남중고의 역사책으로서 사상 처음 만드는 기념비적 과업입니다. 동문님들께서 개인 소장하고 계신 학창시절의 오랜 자료를 흔쾌히 보내주셔서 흠어진 역사를 연결하는데 도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복원작업이 진행 중인 경남고 덕형관(원형교사)에 조성될 ‘역사박물관’(가칭)에 전시될 것입니다.

1 자료의 종류 : 월보, 학보, 교무 행정서류, 사진, 전산자료, 교복, 모자, 단추, 명찰, 상장, 상패, 앨범 등등 학창시절과 연관된 모든 물품

2 자료를 보내실 때 기수와 성함은 물론 간단한 설명 쪽지(날짜, 내용) 포함

3 보내주실 자료는 ‘착불’로 함(우송료는 편찬위원회 부담)

4 보내주실 곳 우편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관 5층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이메일 : parkgyver2@naver.com

카톡/라인 : parkgyver2

5 기간 : 현재 ~ 2022년 2월

경남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참여와 성원이 다진 초석 위에 화합과 우정의 꽃 피우자

<기사 1면에서 받음>

최초 300명 미만 초대가 200명 미만으로, 다시 100명 미만 초대로 변경되는 등 코로나19의 기세에 따라 방역 기준이 강화되자 불가피하게 참석인원을 조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날 참석자도 99명으로 한정, 소규모 용마의 밤 행사로 치른다. 용마코러스의 축하공연도 예정했다 빠지는 등 행사 소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곡절을 겪으며 열리는 2020

년 용마의 밤 행사는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재임 3년의 성공적인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사실상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명예로운 시간이다. 준비된 각종 시상식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날 박종찬 총동창회장을 도와 총동창회관 개관에 큰 공을 세운 남진현(19회) 초대 총동창회관장이 16번째 용마대상 수상자로 수상한다.

이어 우수지구동창회 리더십상과 우

수직능단체 리더십상 수여, 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 공로패와 동창회관 물품기부 감사패 전달식을 가진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지구동창회 리더십상=△강서지구 회장 김택영(26회) △남부산지구 회장 이종휘(32회) △해운대지구 회장 정윤희(36회)

▲우수직능단체 리더십상=△등대회 회장 안청홍(29회) △경미회 회장 우영환(40회)

▲동창회관 리모델링공사 공로패=이영학(26회) 이양걸 전삼록(이상 41회) 권우일(45회) 이태환(46회)

▲동창회관 물품 기부 감사패=김영일(16회) 최동완(21회) 양호진(36회) 여근섭(41회) 이상현(43회) 이승철(44회)

김상수(45회) 김백권(46회) 배준수(47회) 김정현(50회) 황종민(53회).

계속해서 시상으로 등급별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진다. 대상자는 500만원 이상 기부한 동문 등 모두 105명이다. 이날 행사장에는 소수의 인원만 참석, 감사패를 받는다. 나머지는 자택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제22회 총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 결과 발표 및 시상식이 거행된다. 수상자 명단은 동창회보 제431호에 게재됐다.

한편 이날 행사를 시작하면서 총동창회서 제작한 마스크걸이 배포와 착용 세레머니를 가진다(관련기사 아래 게재).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관련 기사 3, 4, 6, 7, 11면 게재>

‘영광의 얼굴’ 공로패·감사패 수상자

❖ 우수지구동창회 리더십상 ❖



강서지구 26회 김택영



남부산지구 32회 이종휘



해운대지구 36회 정윤희

❖ 우수직능단체 리더십상 ❖



등대회 29회 안청홍



경미회 40회 우영환

❖ 동창회관 리모델링 공사 공로패 ❖



26회 이영학



41회 이양걸



41회 전삼록



45회 권우일



46회 이태환



❖ 동창회관 물품 기부 감사패 ❖



16회 김영일



21회 최동완



36회 양호진



41회 여근섭



43회 이상현



44회 이승철



45회 김상수



46회 김백권



47회 배준수



50회 김정현



53회 황종민

“물렀거라, 코로나” 마스크걸이 배포

동기회, 모교, 해외 포함 지역·지구동창회 등 전달

총동창회, 8천개 제작

총동창회는 코로나19에 맞서 치열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동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스크걸이 8천개를 제작해 배포했다. 마스크걸이 푸른 줄 양쪽에는 ‘경남중고총동창회 사무국 (051)253-7788’을 새겨두었다.

배포 대상은 18회부터 53회까지 각 동

기회(납부 기별분담금 비율로 할당), 모교 경남중·경남고, 해외지역동창회(북미 한정, 마스크 포함), 국내 지역동창회, 부산 각 지구동창회 등이다. 또 잔여분은 용마의 밤 행사 참가자용으로 사용하고, 총동창회관 방문 동문 선물용으로 소진할 계획이다. 마스크걸이 배포내용은 표물과 같다.

코로나 대비 마스크걸이 8,000개 배포안

2020-11-28

1. 동기회(납부 기별분담금에 따른 수량)

18회	90	36회	120
19회	90	37회	120
20회	120	38회	120
21회	120	39회	120
22회	120	40회	120
23회	150	41회	120
24회	150	42회	90
25회	150	43회	90
26회	150	44회	90
27회	150	45회	90
28회	150	46회	90
29회	150	47회	50
30회	150	48회	50
31회	150	49회	50
32회	150	50회	50
33회	150	51회	50
34회	150	52회	50
35회	150	53회	50
합계	4,010		

2. 모교

경중	500	경고	600
합계	1,100		

3. 해외지역동창회(북미 한정) + 마스크

남가주	100	시카고	30
북가주	50	애틀랜타	50
뉴욕	50	밴쿠버	40
워싱턴	40	토론토	40
합계	400		

4. 국내지역동창회

재경(총회)	500	김해	120
대전	40	창원	150
울산	120	거제	120
양산	40	통영	30
합계	1,120		

5. 부산 9개 지구

강서	100	기장	30
남부산	100	동래금정	50
북부산	50	사하	100
중부산	100	부산진연제	50
해운대	100		
합계	680		

2020 용마의 밤 행사	110
회관방문 선물용	580



총동창회가 제작한 마스크걸이.



마스크걸이 시연 모습.

등급별 기부자 감사패

브론즈에서 에메랄드까지...자랑스러운 105인의 용마

◇..... 용마의 밤 행사에서 전달될 등급별 기
◇..... 부자 감사패를 한 자리에 모았다. 105명

의 자랑스러운 용마에게 전하는 동문 전◇
체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징표이다.◇

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에메랄드



플라티넘



골드



실버



등급별 기부자 105명의 감사패를 총동창회관 복도 계단에 진열해 보았다. 이 또한 역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브론즈



“동창회 ‘지킴이’ 역할 좀 열심히 한 것 인정해줘 감사”

남진현(19회) 용마대상 수상자 인터뷰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지킴이’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이 2020년 용마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 동문 단결과 화합에 기여한 수십년의 공로가 빛을 발했다. 꺼지지 않는 ‘봉사의 불꽃’을 태우고 있는 남 용마대상 수상자의 수상 소감을 들어봤다.

**인연 중시, 선후배들과 정으로 얹혀
모임 적극 참석...안부인사로 소통
회관 운영 목표 달성 향해서 순항
긍정적 사고, 서로 도와주자 신념**



‘긍정적 사고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돕자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남진현 용마대상 수상자.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축하드립니다. 총동창회관 개관이란 경남중고의 새 역사의 장(章)을 펼치면서 용마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대상을 수상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경남중고 동창회가 없었다면, 동문 선후배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가히 생각지도 못한 상입니다. 영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남중고 출신의 용마라면 누구든 꿈꿔볼 수는 있지만, 78년의 역사와 기라성 같은 인재들의 보고(寶庫) 속에서 지금까지 용마대상 수상자는 지난 1991년부터 15명뿐입니다. 그만큼 귀한 상이지요. 이번 수상의 배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제 자신 스스로가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30여년 이상 총동창회 임원으로서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동문들과 함께 일하면서 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빛을 낸 수많은 훌륭한 인재 동문들에 비해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동창회 지킴이’ 역할을 좀 열심히 한 것을 공적으로 인정해줘 감사할 따름입니다.

-총동창회뿐만 아니라 재경동창회 선배기수들과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선배 기수라면 몇 명 정도 되며, 주로 어떤 형식으로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는 인연을 매우 중시합니다. 경남중고라는, 총동창회라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집단 속에서 맺게 된 동문 선후배님들과의 인연은 깊은 정으로 엮은, 서로 ‘울’이 되는 거물망과 같습니다. 각종 행사나 소모임에 적극 참석하고 (주로 전화로) 안부인사를 통해 소통의 시

간을 갖습니다. 현재 각 기수별로 약 10~20명 정도는 족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후배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근황을 알아보며 안부를 여쭙는 게 좋은 소통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총동창회관 개관을 맞아 회관장 취임, 용마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다고 봅니다. 자신의 올 한해를 평가해 주십시오.

▲먼저 도움을 주신 동문 선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비할 데 없는 큰 도움으로 총동창회관 개관과 총동창회가 제2의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미력하나마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을 보탠 결과 그 성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는 12월 20일이면 총동창회관 개관 6개월을 맞습니다. 회관장으로서 관리 및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문과 집행부 요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목표 달성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많은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잘 대비해서 충실히 대응해 나간다면 목표연도엔 제가 취임 시 언급한 모교 지원이 순조롭게 이뤄지리라 봅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장과 자문위원장으로서, 총동창회관장으로서 호흡이 잘 맞아 총동창회가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박종찬 회장의 동창회에 대한 열정과 리더십 그리고 동문 선후배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봉사로 이루어진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이 다 함께 푹푹 뭉침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해부터는 박성철(29회) 신임 총동창회장 체제가 들어서고, 또 용마장학회도 이용흠(19회) 신임 이사장이 얼마 전 취임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새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마장학재단 이사장님과 신임 총동창회장님이 의기투합해서 동창회를 잘 이끌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중점사업인 총동창회관 운영은 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동문님께서도 신임 이사장님과 총동창회장님께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아가야 진정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전 대수술을 받으셨지만 초연하게 동창회 일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가히 초인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신력과 체력 모두 자기관리에 철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결을 듣고 싶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철저히 지키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뒷받침이 된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좌우명이나 간직하고 있는 신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된(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자’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서로 도와주자’라는 게 저의 신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회 동기회, 모교에서 발전기금 전달식

24회 동기회는 지난 10월 16일(금) 경남중과 경남고를 방문, 발전기금을 각각 전달했다(사진). 임민호 동기회장, 차동렬 동기회 부회장(전 경남중 교장), 김인구 동기회 사무국장, 변중석 재경 50주년 추진단장 등 4명의 동기생은 모교 교장실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갖고 각교 교장 선생 등과 환담

을 나누었다.

올해 모교 졸업 50주년을 맞은 24회 동기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차례 연기된 경부합동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지 않고, 모교에 발전기금을 전달기로 했었다. 24회 동기회는 홈커밍데이 행사 대신 각 지역별 자체 기념행사를 진행기로 했다.



‘정기총회 1월 중순 개최’로 회칙 변경

‘용마의 밤’ 행사 때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가져 이사회임시총회, 회계 기준일과 일정 맞춰

매년 1회 3월에 소집하던 총동창회 정기총회가 매년 1회 1월 중순으로 바뀐다. 격년제로 치르던 ‘용마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하면서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이날 갖는다. 지난 10월 28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열린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다. 전임과 신임 총동창회장의 이임사와 취임사는 정기총회장에서 발표된다.

이번 이사회 및 임시총회는 이 같은 회칙 변경 및 추가를 골자로 하는 의안 처리를 위해 긴급히 소집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자문위원, 운영위원, 일반위원회, 집행위부회장, 동기회장(일부 사무국장 참석) 및 직능단체 대표 등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총동창회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6층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고려, 행사를 총동창회장의 인사말마져 간략히 줄이는 등 일상천리로 진행했다. 각 안건별 토의 및 의결 내용을 소개한다.

▲총동창회 회칙 변경 및 추가=총동창회장의 임기가 1년으로 바뀌었고, 회계 기준일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고려,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을 매년 1월 1일부터(임기 1년 연장 회장은 제외) 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 ‘매년 3월 정기총회 개최’를 ‘매년 1월 중순 정기총회 개최’로 바꾸었다. 추가로 매년 용마의 밤 행사 때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가지기로 했다. 이로써 용마의 밤 행사를 기점으로 총동창회장직 인수인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용마의 밤 행사 개최 관련=△행사 진행 관련-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 참여 인원을 제한했다. 총동창회 임원 외 각 동기회는 회장과 사무국장 등을 포함, 5명 정도로 축소하기로 했다.

△2020년 용마대상 수상자 선정-이날 행사에서 용마대상 수상자 후보로 남진현, 이용흙(이상 19회), 유재진(22회) 동문이 올랐다. 3명의 공적조서를 검토한 결과, 남 동문이 만장일치로 2020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후보자 3명의 공적조서 검토에서 모두가 용마대상 수상자로서는 손색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아 ‘1명 수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총동창회장 이취임식 거행

△33회 동기회, 기별야구대회 우승기 반납-올해 제52회 기별야구대회가 무산됐지만, 지난해 우승팀의 우승기는 반납 거행하기로 했다.

△제22회 용마골프대회 수상자 시상-지난 9월 14일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 대회가 코로나19로 개별 참가형식으로 치러져 시상식을 갖지 못하고 용마의 밤 행사 때 진행하기로 했던

것이다(시상 내역 동창회보 제 431호 6면 참조).

△회관 개관 공로상 수여-총동창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한 동문 중에서 공적이 큰 4명을 선정,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 두 주역이 양길, 전삼록(이상 41회) 동문과 미니역사관 전시 자료 제작을 맡은 권우일(45회) 동문,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이태환(46회) 동문이 선정됐다.

△수시기부 등급 부여자 기념패 전달-500만원 이상~5억원 이상 8단계에 해당하는 105명(2020년 11월 30일 현재)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덤으로 추가 기부와 등급 상승의 동기 부여도 기대하고 있다.

▲총동창회관 운영 현황 보고=1~5층 총 임대 대상 전세금 2억6천만원, 월세 825만원(4층 공실 2곳 포함)으로 보고됐다. 공실 임대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했다.

▲덕형관 원형복원사업 자문 현황=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은 류종우(18회) 위원장을 비롯, 위원 9명이 활약 중이다.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보고회가 2차례 있었다. 2차례 보고회에서 자문위원회는 내진보강, 덕형관 역사관 활용 방안, 이태석 신부 추모공

원 건립 등을 비롯한 교내 설치물 재배치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원형복원 공사 이후 역사관 내부 시설 설치와 자료 전시 및 보관 등을 위한 경비 조달 방안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모교80년사 진행 관련=편찬위원회 편집위원들의 학교별 자료 수집 활동 등이 보고됐다. 재정동창회의 모교 80년사 단독 편찬 추진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최악의 경우 2개의 모교 80년사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총동창회 편찬위원회의 정성과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기별분담금 입금 현황 보고=일부 기별분담금 및 야구후원금 미납 동기회 보고와 함께 납부 독려 방안 등이 거론됐다.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보고=10월 27일 현재 총 2,969명 납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 목표인원 4,000명은 달성키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여파로 동기회 활동 등이 위축됐고, 경기 침체까지 겹쳐 납부율이 다소 저조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있었다. 올해 3,000명 돌파가 수정 목표치로 정해졌다.

◇참석자(직책 생략·가나다 순)=남진현(19회) 광두희 노상우(이상 24회) 박종찬 오양득 옥동훈 장세훈(이상 25회) 이광태 이영학(26회) 김대욱 김종명 박성철 오덕현(이상 29회) 이원용(30회) 류명석(31회) 류장근 백수현(이상 33회) 옥재명(34회) 양호진(36회) 권두성 신동훈(38회) 박근태 윤원욱(이상 39회) 이영도(42회) 박승삼(43회) 안병규(44회) 김상수(45회) 김정현(50회) 구민석(51회) 김현진(52회).



총동창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지난 10월 28일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모교와 동문 사랑만큼은 꼭 전하고 싶어”

홈커밍데이 행사 접고 모교·총동창회에 지원금 졸업 40주년 34회 동기회

“비록 홈커밍데이 행사는 갖지 않았지만, 모교와 동문에 대한 사랑만큼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올해 모교 졸업 40주년을 맞은 34회 동기회가 홈커밍데이 행사를 취소하고, 모교 경납고와 총동창회에 발전기금과 지원금을 각각 전달(사진)하게 된 서운하지만 정성어린 마음을 표현했다.

34회 동기회는 지난 6월 중순 개최

를 계획했던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코로나19 사태로 하반기로 미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이성엽 34회 동기회장과 옥재명 사무국장은 지난 10월 26일 경납고 교장실과 총동창회 사무국을 방문, 경납고 발전기금 200만원과 야구부 지원금 100만원, 총동창회 지원금 2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성엽 34회 동기회장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할 동기생들과 내빈들의 건강을 우선시했다. 일반 동기생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고 일부 관심 있는 몇몇 동기생과 재정동기회가 뜻을 모아 약소한 지원금을 마련했다. 행사가 치러졌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34회 동기회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총동창회 가족으로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다한 지난 3년, 많은 동문에게 이런 저런 신세 저 감사”

박종찬 총동창회장 인터뷰

경남중고 총동창회의 지난 3년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도약과 성취의 시간이었다. 오랜 숙원이었던 총동창회관 개관,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조직으로 40대 이후 기수들의 결집과 참여의식 고취, 지역·지구동창회의 조직화와 활성화, 해외지역동창회의 복구 등 많은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 이 같은 드라마틱한 ‘대성공의 시대’를 연출한 주인공은 바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다. 과감한 도전정신과 모교와 동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총동창회의 새 지평을 연 박 총동창회장. 오는 12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박 총동창회장으로부터 퇴임에 즈음한 감회를 들어보았다.

모든 성과는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 사랑으로 이룬 것
후배들의 자존감과 자부심 깊이,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복(福) 중에서 인복이 최고인데 경남중고 졸업만으로도 멋진 동기생과 선후배를 가졌다”고 말하는 박종찬 총동창회장.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난 3년 정말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술한 업적이 마치 병풍처럼 나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의 업적은 단연코 총동창회관 개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본 감회는 어떻습니까?

▲총동창회장을 맡기 전 3년간 집행부 분과위원장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 동문회의 취약한 실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문회의 외화내빈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마음으로 2018년 3월 7일 취임했습니다. 미래를 보고 가야하는 동문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후배들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안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취임사에서 우선 자괴감을 일으키는 속칭 ‘뽕뽕이’란 호칭을 사용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회관구입기금 모금은 수많은 동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회관을 갖자고 20억원 모금목표를 제시했고, 2년 만에 21억3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금에 동참한 선후배님, 동기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시점은 2018년 2월 재경동창회 정기총회 참석 인사말에서 재경이 갖고 있는 71억원에서 한푼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뒤입니다. 제가 1억원의 마중물을 냈지만 그 당시 동문회 분위기로는 20억원을 모금한다는 일은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30여명의 3천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와 1,000명이 넘는 일반기부자들의 모금 참여에 힘 입어 자랑스러운 회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동창회관 개관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91년 이후 모든 선후배 동문들이 한결같이 갖고 싶어 했던 염원이 있었기에 29년 만에라도 실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총동창회관을 좀 더 일찍 가졌더라면 우리 동문회의 결속력은 다른 차원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동창회관 개관 외에도 회장님의 업적은 참 많습니다. 회장님이 거둔 업적을 한번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문들의 성원과 관심, 사랑으로 이룬 것들이지요.

박 총동창회장이 재임기간 이룬 업적을 살펴보면, △38회 김태호 동문의 제안으로 총동창회밴드를 개설

하고 시상품을 걸고 회원가입운동을 한 결과 두 달 만에 2,000명의 회원을 확보했던 일 △43회 박형규 동문이 건의한 경미회(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40회 이후 동문들로 구성) 발족과 더불어 초대회장 40회 우영환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최고의 직능단체로 성장하게 된 점 △부산지역 분할, 9개의 지구동창회 결성 △해외지역동창회 망라한 총동창회 조직표 작성 △총동창회장 동기생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발족 △동창회보의 2개월 주기 정기 발행과 역사 기록지 역할을 위한 수시 증면(24면에서 44면까지 확대) △회관 내 미니역사관 전시자료 정리(모교사, 야구사, 동창회사로 구분) △직능단체의 재정리(경야회 재출범 포함) △동창회보 축쇄판 제4집 발간(회보 301~400호) △해외지역동창회 방문으로 관계 부활(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수시시기부 축적 등급별 기부시스템 도입(브론즈에서 다이아몬드까지) △회칙을 현실에 맞게 미래지향적으로 수정(회장 임기 1년 연임으로, 용마의 밤 행사는 매년하며 회장 이·취임식 거행) △동문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자택 오픈 하우스행사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경미회를 늘 자랑하시는데, 그 존재의 의미와 장래를 전망해주시고.

▲동문회는 과거역사에 간혀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평준화 이전과 이후 동문들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선배들이 무의식적으로 31회 이후 후배들을 소홀히 대접한 결과 동문회의 결속력이 서서히 약해졌습니다. 자연스레 30회대 동문들의 닫힌 마음은 40회 이후 후배들을 이끌 힘마저 떨어지게 했다고 봅니다. 느끼시겠지만 제 취임 초기에는 각 지구, 직능회 등에 40회대 후배들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경미회를 주축으로 수많은 40회대 후배들이 여러 분야(지구 모임, 기별야구, 용마코스, 용마골프회, 기부행위 등)에서 동문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장차 총동창회장을 배출하는 화수분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지난 3년 재임 동안 동문사회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회장님이 그 변

화를 진단해주시고.

▲많은 후배들이 화려한 전통을 가진 모교와 동문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존감과 자부심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모교나 동문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나 이벤트가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밴드나 회보를 통해 상하 소통의 창구를 확대했고, 좌우를 살필 기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재임 기간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 고충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힘들었던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2018년 1년간 목표로 회관 구입을 위해 모금을 시작했을 때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모금 진행속도가 너무 늦어진 점에 큰 애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다는 표현에 맞게 샌프란시스코지역동창회 소속 21회 고(故) 손석보 동문의 미망인이 자녀와 함께 온 모교방문길에 3,064만원의 회사를 결정해서 새로운 차원의 모금에너지가 생겨 2019년 말까지 1년간 모금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홈커밍데이 행사 때 만났던 어떤 재경 선배님이 동창회관 구입 모금에 동참하겠다고 명함을 주시면서 서울 한번 다녀가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걸고 찾아갔는데 재경의 미묘한 분위기로 동참할 수 없겠다고 말씀했을 때의 큰 실망감은 잊지 못할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문회에 새로운 기운과 큰 변화가 생긴 지난 3년 동안의 제 임기 중 동기생 문제인 대통령이 동문회에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차기 및 차차기 회장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차기와 차차기 회장은 총동창회를 멋지게 이끌어갈 역량을 가진 분들이므로 스스로 판단해서 잘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필요시 도움을 요청하면 힘이 닿는 대로 적극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팁을 드리자면 선배님들을 향한 동문에도 좋지만 가까운 동기생들의 협조를 얻는 게 최우선이며, 집행부 부회장들의 의견을 자주 경청하고 동문회를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기사 7면에 넘김>

동문회 모임 자주 참석, 시간봉사 공덕으로 '인복' 찾길

<기사 6면에서 받음>

모임을 통해 만나는 후배들의 개방된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에서 단 한번 주어진 특별한 기회이므로 최선을 다해 소통하길 바라며, 총동창회장으로서 초대받는 모임에는 무조건 참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모교80년사 편찬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덕형관 복원과 함께 이태석 신부 기념공원 조성, 그리고 덕형역사관 건립 등 힘든 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원만히 잘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해 주십시오.

▲모교80년사는 16회 김형석 동문의 지휘 하에 경중팀(23회 김기열, 25회 전섭태, 27회 이요섭), 경고팀(24회 박창호, 28회 박종기, 30회 서강태)으로 구성되어 열심히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퇴임 후에도 멋진 작품이 되도록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년사, 60년사, 70년사의 발간 실패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80년사만큼은 모든 동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덧붙여 재정에서 단독으로 편집하고 있는 부분이 합본으로 탄생하면 국내 고교 중 최고 명작이 되지 않을까요?

덕형관 복원과 관련된 사업은 차기회장과 차차기회장의 몫입니다. 국가문화재 건물로 지정받은 덕형관에 대해 복원설계용역업체로부터 최종보고회가 지난 11월 12일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덕형관을 역사관으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보강하는 비용은 2021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신청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2022년 덕형관 보강공사를 마치는 동시에 내부는 역사관 전시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23년도에 가칭 '덕형역사관'이 완공됩니다. 그와 별개로 덕형관 외부 구름다리 주변에는 이태석 신부 추모 미니공원, 6·25참전 동문 추모공간,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 등을 조성해서 방문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모교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고 내 조형물을 재배치하는 공사는 2021년 하반기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동창회관 미니역사관 이태석 신부 소개 게시판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퇴임을 하시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총동창회에 기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회관 개관을 완성하기 위해 회장 임기가 3년이나 되었습니다.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한 긴 세월이었으니까 특별한 계획이나 구상은 없습니다. 다만 많은 동문들에게 이런 저런 신세를 많이 졌으므로 서서히 갚아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문자격으로 차기회장들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경미희의 경우 명예회장직 추대를 수락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갖고 교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재경동창회와의 불협화음을 종식시킬 방안을 찾자면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재경동창회는 서울로 진출한 막강한 선배님들 덕분에 오랫동안 동문회 발전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하루 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이끌 후배들과 함께 고민하는 동문회로 변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으며, 제가 그 시기를 좀 앞당긴 것이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란 영어 표현을 곱씹게 됩니다. 만 부산을 떠나 있지만 모교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고 모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동문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야망으로 총동창회장이 되려고 준비해 온 사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30년 이상 운영해 온 경험에 따라 동문회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찾고 해결 방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모교발전기금을 약 20억원 더 갖고 있는 재경동창회지만

지역동창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10년 후에는 제가 평소 예측한 부분에 대해 모든 동문들이 수감할 결과를 목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교의 뿌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총동창회는 본연의 임무로 모교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관리하고 모교를 적극 지원하며, 앞장서서 모교의 전통과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퇴임하시면서 특히 후배 기수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 한 자락을 풀어주십시오.

▲평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지 않고 이타심으로 살면서 수시로 '나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십시오. 복 중에 인복이 최고입니다. 경남중고를 졸업한 것만으로도 멋진 동기생과 선후배를 가졌습니다. 동문회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시간봉사 공덕으로 주어진 인복을 찾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초공정 마음을 가지고 순리대로 '우생마사' 정신으로 살면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장기 레이스인 인생에서 경남중고인으로 자부심을 만끽하고 건강과 행복을 거머쥐는 후배들이 많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총동창회관 신축 건물 아니냐?”

초청 방문한 고교동문연합회 회원들, 감탄사 연발

부산지역 고교동문연합회라는 낯설은 단체의 인사들이 지난 11월 11일 오전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 이 단체는 부산의 7개 남자고교 동창회 전·현 회장의 모임으로 수장(首長)이 이용흠(19회) 용마장학회 이사장이다. 이 회장이 10년 전쯤 결성하여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이날 모임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용흠 회장을 비롯, 개성고 김정문·이경재 전·현 총동창회장, 동아고 박종호 전 총동창회장, 부경고 노종현·김형식 전 총동창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종찬 총동창회장

의 회관 개관 과정과 미니역사관 및 내부 설명을 들은 뒤 회관 내 식당 우미옥



총동창회관을 초청 방문한 부산지역 고교동문연합회 소속 남자고교 동창회 전·현 회장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건물의 깨끗함과 내부시설 등에 대해 감탄사를 연발했다. 참석자들은 미니역사관 내 야구역사 중 각종 대회 승부기록에서 자신들의 학교명이 나와 있자 큰 관심을 보였다. '격파' '석패' 등 용어 표

현의 수위를 두고 나름 평가를 하며 자신들의 애교심을 드러냈다.

당구장을 둘러보던 중 이 개성고 총동창회장은 즉석에서 경남중고 총동창회와의 당구시합을 제의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이를 흔쾌히 수용, 가까운 시일 내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이용흠 회장은 “여러 학교의 전·현 동창회장의 모임이라 학교와 동창회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그동안 선의의 경쟁도 하면서 우정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은 식사자리에서 “총동창회관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동창회에서는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등이 배석했다.

“동창회 15년 봉사, 즐겁고 보람차고 자랑스러웠다”

재단기금 사용, 동창회관 성공리 건립한 일 기억
장학재단 내실 다지기 위해선 후원문화 정착돼야

안강태(11회) 용마장학회 전 이사장 인터뷰

지난 11년 동안 (재)용마장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해 온 안강태(11회) 이사장이 후배 기수인 이용흠(19회) 총동창회 고문에게 이른바 ‘선위’를 했다. 아무런 잡음 없이 순탄하게 장학회를 이끌어 왔고, 총동창회관 보유 장학회 육성이란 성과를 남기고 퇴임하는 안 전 이사장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용마장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신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인데 이사장 자리를 떠나는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 되었네요. 짐을 벗게 되어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차기 이사장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해 송구하면서도 더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임기가 아직 1년여 남았는데 사의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래 전부터 후배 책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후배 후임자가 나타나 든든합니다.

-총동창회장 4년, 용마장학회 이사장 11년 합계 15년을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어떤 감회가 드시는지요?

▲동창회 일이란 항상 즐겁고 보람찬 봉사이지요. 동



훌륭한 후배 후임자가 나와 짐을 벗게 돼 어깨가 가벼워졌다는 안강태 전 용마장학회 이사장.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문 선후배들과 함께 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용마장학회 이사장 11년 재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좀 미진했던 모교 지원 부분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창회관 건립에 장학재단 기금이 유용하게 쓰여 성공리에 개관한 게 참으로 잘 된 일이며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이사장을 맡으신 11년 전에 비해 지금은 총동창회관도 갖추는 등 큰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동문의 숙원사업을 십시일반 적게는 10만원 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동문 전체의 열정과 정성이 모아진 결과라 봅니다. 특히 역대 선후배 회장님과 집행부의 노고도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마장학회가 재정 규모나 운용 등에 있어서 보다 더 탄탄한 구조와 내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많은 동문들의 아낌없는 후원이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창회에 후원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용마장학회 이사장직은 그만 두시지만, 총동창회 고문단 명예회장으로는 계속 남아 계십니다.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십시오.

▲우선 회관 사업이 내실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동문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통해 총동창회를 단합된 조직으로 승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선조선 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기업가로서도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인생선배로서 후배동문들에게 들려줄 삶의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열정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기를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흔히 ‘저 사람 참 사람 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순리에 따릅시다’라고 한 줄 써봅니다.

용마장학회, 이사장직 원만히 승계

안강태(11회) 이사장, 총동창회관 개관에 맞춰 사의
이용흠(19회) 신임 이사장, ‘잔여임기’ 11개월 맡게 돼

이용흠(19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고문이 (재)용마장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용마장학회는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면 월강일식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안강태(11회) 이사장의 사의를 받아들이고 이 고문을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안 이사장의 잔여임기 11개월을 맡는다.

이날 안 이사장은 “용마장학회 이사장직을 물려나려고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이사장은 11년 동안 이사장직을 맡아왔다. 용마장학회가 관리·운영하는 총동창회관에서는 결재 등 행정사무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 보다 원활한 업무 이행을 위해 고령의 안 이사장이 퇴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안 이사

장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고, “장학회 이사를 20년쯤 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말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장학회 재정 건전성과 이사장 임기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뜻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변경 건과 관련, 4가지 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4가지 의안은 △법인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증액 △부동산 임대사업 추가 △장학회 홈페이지 실적 공개 등이다.

법인 소재지 변경은 직전의 골든오피스텔 총동창회 사무국 내에서 지난 6월 20일 개관한 총동창회관(부산시 중구 대청로 18) 내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기본재산은 변경 전 16억2천800만원에서 26억6천320만원이 증가하여 42억9천120만원(총동창회관 건물+토지 30억원)+리모델링 12억9천



용마장학회가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면 월강일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120만원이 되었다. 부동산 임대사업 추가는 총동창회관을 갖게 됨으로써 회관 내 사무실 임대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장학회 홈페이지 실적 공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됨으로써 불가피한 일이다. ‘용마장학회는 경남중고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 두었다.

용마장학회 이사회는 이 자리서 퇴임하는 안 이사장의 상임고문 추대 안건을 상정,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켰다.

◇참석자(직책 생략)=△장학회 이사-장혁표(8회) 안강태(11회) 남진현 이

용흠(이상 19회) 이병찬(23회) 박성철(29회) 박명진(33회) 임태영(40회) △장학회 감사-김태우(27회) △총동창회-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김종명(29회) 윤원욱(39회).

>> 알려왔습니다 <<

동창회보 제431호 5면 ‘모교 80년사 편찬 논평’ 관련하여 재경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1. 금성기획 사장 A씨를 초대할 적이 없다. 2. 금성기획 사장 A씨와 80년사 편찬과 관련한 상담은 없었다. 3. 금성기획 사장 A씨와 80년사 관련 오고간 ‘돈’ 이야기는 없었다.

“목적사업에 충실하면서 재원 확충 위해 노력”

이용흠 용마장학회 이사장 인터뷰

(재)용마장학회는 지난 10월 12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이용흠(19회) 총동창회 고문을 추대했다. 안강태(11회) 전임 이사장에 이은 11년 만의 용마장학회 이사장 교체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제31대 총동창회장직(2009년 3월~2011년 3월)을 맡아 총동창회의 중흥을 이끌어 냈으며 용마장학회 이사로도 약 20년간 활동해 왔다. 총동창회관을 비롯한 기본재산 등 총 50여억원에 이르는 용마장학회 재산 관리와 운용의 책임을 맡게 된 이 신임 이사장을 만났다.



성격상 어떤 일이든 한번 맡으면 적당히 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는 이용흠 용마장학회 신임 이사장.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총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총동창회의 핵심자리인 (재)용마장학회 이사장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총동창회관도 새로 갖게 됐고 전과는 달라진 총동창회 환경입니다. 중책을 맡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마장학회 일은 제가 20년이나 이사로 참여해 왔기에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전임 안강태 선배님이 잘 이끌어 오신대로 장학회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취임 일성이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미 부산대학 장학재단이사장 경험도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동창회 업무와는 다른 공적인 면이 강한 것이 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상 어떤 일이든 한번 맡으면 적당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운 수밖에요. 적당히 해서 될 일도 아니고...뭣보다 용마장학회는 말씀하신 바대로 동창회관의 운영이라는 또 다른 과업을 풀어나가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역점을 두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지요.

▲어느 장학회든 마찬가지이지만 사실 장학회의 활동이라는 게 활동내용이 뻗습니다. 정관에 명시돼 있는 목적사업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요. 우리 용마장학회의 경우 장학금 지급, 모교 교사들 연구활동 지원, 모교 야구

“어떤 일이든 한 번 맡으면 적당히 못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위하고 봉사하는 삶’이 인생의 정도...술한 건축 명작 이뤄내” 설계사 회장·여러 민간단체 수장 맡은 ‘일인다역’의 열정 귀감

부 지원 등이 핵심 목적사업입니다. 문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숙제인데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 여러 대책들을 연구해볼 생각입니다.

-모교 재학생 장학금과 시설 지원금, 야구부 지원 등 현재의 지원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욕심대로 지원규모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원 한도 내에서 어느 부분에 더 치중할 것인지는 이사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마장학회 재원을 늘릴 방안은?

▲사실 재원 확충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점은 총동창회관 건축을 위하여 뜻있는 동문들이 많은 기부를 한 직후이기에 기부에 대한 합리적인 명분을 잘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리고 신임 총동창회장과 의견들을 모아 기부하는 동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 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동창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발전시킬 방안을 찾자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사장 인계인수가 얼마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동창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찬 회장과 남진현 관장의 수고가 곳곳에 들어나 있는 것은 방문한 모든 동문들은 물론이고, 각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들의 소감이기도 합니다.

이 신임 이사장은 2011년 총동창회장을 마치고 곧바로 부산대 총동창회장을 맡아 큰 업적을 쌓았다. 지역사회에서 손꼽히는 두 총동창회의 회장직을 모두 추대 받아 잇달아 맡다보니 주변사람들로부터 ‘총동창회장 전문’이라는 칭찬 섞인 농을 듣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종합건축사무소인 일신



집무실과 서재 및 접견실을 한 군데 모은 듯한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회장실에서 이용흠 용마장학회 이사장이 인터뷰에 응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설계를 창업, 40여년간 건축설계 일에 매달려오면서 수많은 건축작품들을 남긴 유명건축가다. 부산시청, 벡스코, 누리마루 하우스 등이 그의 작품이다. 최근에도 부산은행 본점, KNN 사옥, 오페라하우스 등을 설계했다. 그는 여전히 일신설계 회장으로서는 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

-건축가로서 또 사업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셨는데 그 비결은?

▲우리 세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가 치열히 전개되던 세월이었지요. 다행히 저는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가치관, 인생관에 대한 소신을 온 좋게 일찍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직업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건축설계는 창작이 본질입니다. 예술분야와는 달리 거기에 더하여 기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비

중이 큼니다. 건축주로부터 ‘받는 설계비보다 더 많은 가치를 돌려주는 것이 건축가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 저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오직 건강한 작품을 만드

는 일에만 열중해왔습니다. 그런 고집을 가지고 끈질기게 살아남았다고 할까요. 모든 분이 자기 직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건축가라는 직업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건축설계업을 사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부산의 건축을 위해서, 부산의 관광육성을 위해서 ‘이상건축’이라는 전문잡지와 ‘부산포’ ‘월드서울’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또 베링해협과 한일해협을 잇는 해저터널 일에도 오랫동안 봉사를 해왔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위하고 봉사하는 삶’이 인생이 가야 할 정도(正道)라고 생각하고 한길을 걸어온 것뿐입니다.

이 신임 이사장은 회사일 말고도 현재 한일터널연구회(사), 여해재단(사), 부산미술관회(사) 이사장 그리고 (사)전주이씨 부산지원장 등 여러 민간단체들도 맡아 이끄는

등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리들은 그가 하고 싶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모두 추대받아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자리들이다.

<기사 10면에 넘김>



경남고에 자리한 80년사 편집실에서 박종찬 총동창회장과 편집위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 왼쪽). 경남중 80년사 편집실에서 편집팀이 수집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오른쪽).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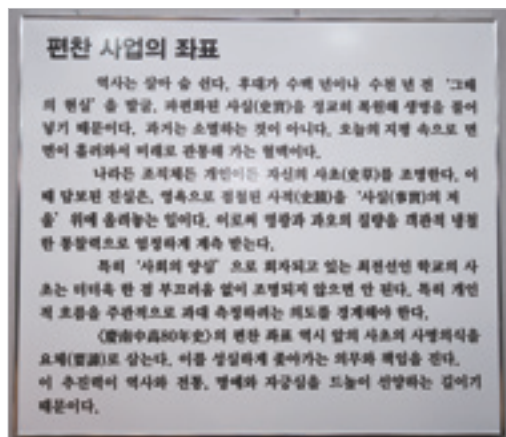
모교 80년사 자료 찾기에 '심혈'

편집위원들, 경남중고에서 먼지 쌓인 자료 옥석 가려
원로 선배 찾아 방문, 숨겨진 귀한 증언들 채록작업도

총동창회 모교 80년사 편찬위원회가 출범(지난 8월 15일) 4개월 만에 자료 수집 1차 작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편찬위원회 산하의 편집위원회는 이번 1차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수집 자료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작업을 가지고, 곧바로 집필 작업과 동시에 2차 자료수집에 돌입할 계획이다. 물론 자료수집은 80년사 제작 돌입 전, 편집 마감 전까지는 지속될 예정이다. 사료(史料)의 진실성을 최대한 높이자는 의미이다.

편집위원들은 지금까지는 총동창회 사무국 내 개설된 편찬위원회 사무실에 매주 월~목요일 오전 출근, 회의를 갖고 수집자료에 대한 분석 및 정보 교환, 방향설정 등을 하고 있다. 회의를 마치면 경남고와 경남중 담당 각 팀별로 모교를 방문한다. 김형석(16회) 편집위원장은 사무실에 남아 수집자료들에 대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분석과 분류, 축적된 자료들과의 연관성 조사 등을 하면서 집필작업이 보다 용이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오후에는 자료수집을 위해 부산시교육청을 비롯, 연관 공공기관 등을 방문해 자료를 모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쓴 '편찬 사업의



총동창회관 80년사 편찬위원회 벽에 부착된 '편찬사업의 좌표'

좌표'를 집무실 벽면에 게시해두고 있다. '사회의 양심'으로 회자되는 학교의 사초(史草)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실(事實)의 저울' 위에 올려 객관적 냉철한 통찰력으로 엄정하게 조명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일제 압축기와 해방공간, 전쟁과 사회적 혼란 등을 겪으면서 많은 사료들이 축적되지 못했다. 편집위원들이 큰 고생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편집위원들은 그동안 경남고와 경남중의 배려로 두 모교에 각각 '모교 80년사 편집위원실'을 설치하고 집중적으로 자료 수집에 나섰다. 학교 밖의 외부 자료 수집 외에는 이곳에서 오후 늦은

시간까지 먼지 쌓인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다. 교내에 존재하는 각종 자료들을 연도별로 분류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탐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로 동문들을 수소문하여 방문, 지난 역사를 채록하고 있다. 동창회 산하 단체도 찾아가 역사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경남고팀은 박창호(24회) 박종기(28회) 서강태(30회) 동문 이, 경남중팀은 김기열(23회) 전섭태(25회) 이요섭(27회) 동문이 맡고 있다. 이들 전체의 평균 기수는 26회이다. 사회적으로는 원로급이지만, 열정은 한결같고 대단하다. 본격적인 집필작업에 들어가기 전 동문들의 성원으로 숨겨졌던 자료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편집위원들은 자신들이 80년 모교사를 엮어 낸다는데 큰 자부심과 기쁨을 얻고 있다고 말한다. 경남중팀 전섭태 위원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업이다. 몰랐던 과거 역사를 찾아가니 놀라운

사실들이 펼쳐지면서 희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요섭 위원은 "훌륭한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다. 정말 좋은 기회이다"라며 핸드폰에 담아둔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곁들인다. 신문사 기자 출신인 김기열 팀장은 "이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역사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작금의 이념논쟁 같은 것도 과거 역사를 들춰보면 그 진실성과 허구성을 쉽게 판별할 수 있겠더라"며 참된 역사기록을 강조했다.

경남고팀 박종기 위원은 "경남고팀은 지난 3개월 1965~2020년 55년간의 사료를 대부분 찾아내 연도별로 요약 서술하는 중이다. 정대호 경남고 교장의 배려와 직전 교장인 서강태 편집위원(30회)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팀에게 넓은 작업실은 물론, 학사자료, 체육·학예부서별 활동 자료의 검색까지도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1942년부터 1965년까지의 자료는 경남고도 소장하고 있지 않아 20회 이전의 동문 선배, 유가족, 언론사와 국가기록원 등 각계와 교섭하는 중이다. 동문들의 실물 자료 기증을 바란다. 이는 역사관으로 조성될 덕현관(원형교사)에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위원들은 매일매일 사료 수집과 정리에 매달리면서 80년사 출간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경중 강당 시설 현대화 지원금 전달 경고야구부에 봉황대기출전 격려금

총동창회는 경남중 강당 시설 현대화 작업에 1,530만원의 지원금을 지난 11월 초에 전달했다. 경남중은 이 지원금으로 빔프로젝트, 대형 스크린 설치(사진 왼쪽), 영상오디오 송수신 케이블 포설 작업 등을 완료했다. 이 작업은 김정현(50회) 동문이 맡아 정성을 다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15일 제 4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하는 경남고 야구부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오른쪽). 이날 옥동훈(25회) 사무총장과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경남고 정대호 교장과 조민형 교감을 예방했다.



<기사 9면에서 받음>

-그 연세에 보통 사람으로선 업무를 낼 수 없는 일이다역의 현역이신데, 평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 오고 계십니까?

▲저는 건강한 편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고교 졸업 시에는 폐결핵으로 그리고 중년에는 간경화로 상당기간 병치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16년 전에는 간이식을 하였기에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저의 철학이라고 할까요. 육체건강에 우선하여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니 여러 가지 성인병들과 공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리가 건강해야 한다, 근육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아침 집에서 미포까지 왕복하거나 동백섬을 몇 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오후엔 집 부근 헬스클럽에서 근육운동으로 땀을 흘립니다. 노후에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의 취미는 골프. 그를 아는 이들은 그가 나이답지 않게 드라이버로 공을 200m 이상 날리는 장타자라고 말한다.

기부자 리스트

2020년도 기준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루비		3억원이상	0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사파이어		2억원이상	0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에메랄드		1억원이상	5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11	오 완 수	1억원	
2	23	김 영 기	1억2100만원	100만원
3	25	박 종 찬	1억500만원	3400만원
4	30	최 우 철	1억600만원	
5	33	박 명 진	1억100만원	100만원

플라티넘		5천만원이상	13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16	송 규 정	5200만원	1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100만원	200만원
7	24	박 홍 규	5000만원	
8	25	김 진 철	6200만원	100만원
9	26	박 상 호	1550만원	3500만원
10	29	김 대 욱	6550만원	300만원
11	30	윤 성 덕	6150만원	100만원
12	37	허 부 남	5250만원	50만원
13	38	권 두 성	7100만원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9	조동훈(미)	3056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4	19	이 용 흥	410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9	28	백 영 호	3150만원	
10	27	박 치 호	1000만원	3000만원
11	29	박 성 철	3350만원	100만원
12	30	김 현 태	1200만원	2050만원
13	31	박 종 호	3150만원	100만원
14	31	홍 성 수	3220만원	
15	33	김 법 영	4150만원	
16	35	장 인 화	3100만원	100만원
17	36	박 진 용	3100만원	
18	38	정 재 형	1000만원	2050만원
19	39	박 근 태	3060만원	50만원
20	40	우 영 환	3150만원	250만원
21	44	탁 정 환	3300만원	50만원
22	47	정 신	3110만원	5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4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3	송 두 호	1000만원	
2	8	박 동 렬	1000만원	
3	10	조 양 제	1000만원	
4	12	남 기 용	1000만원	
5	15	손 부 흥	1500만원	
6	15	천 신 일		2430만원

실버		1천만원이상	24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7	15	한 해 수	1000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3	21	강 창 수	16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0	28	노 영 현	135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2	33	이 순 환	1000만원	
23	33	최 웅 남	800만원	500만원
24	34	이 진 호	350만원	8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1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	8	김 봉 길	500만원	
2	17	김 동 수	500만원	
3	17	윤 성 욱	500만원	
4	17	조 증 언	500만원	
5	19	김 봉 호	600만원	
6	19	장 홍 의	600만원	
7	20	김 태 영	500만원	
8	20	박 병 철	500만원	
9	23	이 상 수	350만원	150만원
10	25	김 익 수	600만원	50만원

브론즈		5백만원이상	41명	2020년
No	기수	이름	금액	협찬
11	25	박 세 철	380만원	120만원
12	25	손 기 천	250만원	300만원
13	25	송 정 규	550만원	
14	25	이 명 철	680만원	
15	26	김 상 현	500만원	
16	26	박 재 욱	500만원	
17	26	박 효 대	300만원	200만원
18	26	하 원 규	500만원	
19	27	김 태 우	450만원	50만원
20	27	문 두 찬	600만원	
21	28	구 영 소	500만원	
22	28	이 원 철	900만원	
23	28	최 강 호	500만원	
24	29	이 석 조	500만원	100만원
25	30	김 해 곤	200만원	500만원
26	30	윤 인 태	580만원	
27	30	이 명 건	30만원	500만원
28	30	이 학 수	700만원	
29	30	허정택(미)		615만원
30	31	남 기 태	700만원	
31	31	류 명 석	630만원	30만원
32	31	오 민 일	600만원	
33	31	이 병 태	600만원	
34	31	정 철 수	500만원	
35	32	이 종 휘	630만원	50만원
36	34	박 철 웅		500만원
37	34	이 재 완	550만원	
38	39	백 기 현	10만원	800만원
39	41	이 양 결	300만원	500만원
40	44	안 병 규	100만원	500만원
41	64	표 종 빈	500만원	

덕형관 원형복원 설계도서 미흡하다
용역업체 납품...자문위원회, 3차 이어 재보완 요청

경남고 덕형관 원형복원 종합정비계획 및 설계용역이 지난 11월 20일자로 기한 만료돼 23일 납품되었다. 총동창회 덕형관 원형복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곧바로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한 준공처리 기한이 9일 이내이다. 자문위원회는 11월 26일 현재 의견을 수집 중에 있으며, 보완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용역업체 다울측에 지금까지 3차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수정보완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납품된 완성 설계도서 일부 사항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돼 있는 등 보다 세심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정보완 작업이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3차 최



경남고 덕형관 원형복원 설계용역사업 3차 보고회가 지난 11월 12일 경남고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종보고회에서 1, 2차 중간보고회에서 보완요청한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재차 보완요청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 걸려진 보완요청 사항은 모두 10가지이다.

3차 보고회를 거치고 자문위원회가 용역업체에 요구한 보완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덕형관 옥상 실외기 배치 부적합-새로운 대안 마련 필요 ▲실내 칸막이 벽체 설치 억제-부득이 한 경우 경량벽체로 조성하되 고정벽체는 내진

벽체로 시공 ▲재난방지 소방시설 완비-현행법 규정에 맞게 ▲외부 창문 복원-알루미늄 시스템 단창으로 하되 3중 유리 창문 요망 ▲1950년대 조명기구 시설-시대성 살리는 공간은 원형복원 목적에 맞춰야 ▲미래발전을 위한 건의-건축 원형복원만이 아니라 내부 전시 기능 및 외부 환경조성까지 멀리 내다 보는 종합적 안목 필요 ▲1층 기단부 복원에 따른 부작용 대치-주변 마당 굴착에 따른 지하 기반시설 등의 영향 해소

책 마련 ▲문화재 관람 위한 1개층 외부 발코니 활용 반영 ▲문화재 내진 보강-△안전진단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방안 제시 안 돼 재차 요구 △법규정에 맞게 설계하중 반영 요구 △엘리베이터 구조물 신규 설치에 따른 기존 건물의 안전성 여부 확인 작업 절실 ▲장애인 엘리베이터(EV) 시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 보완-△규격 진입로 등 적정성 확인 필요 △EV구조물 불규칙한 돌출 방지 위한 첨단 EV 도입 검토 △장애인화장실 신규 설치 협의 △화장실 1곳 원형(반수세식) 복원.

◇3차 최종보고회 참가자=△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자문위원회 위원장:류종우(18회) 전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자문위원:장상진(16회) 전 건축가 협회 부산지회장, 김정신(24회) 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이영학(26회) 부산서구건축위원회 위원, 박종기(28회) 전 대우조선해양 홍보실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김인수(41회) 전기·소방시설 전문가, 강인호(42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경남고 야구부에 나무배트 30자루 기증
정신(47회) 동문, 모교 후배 선수들 사기 진작

정신(47회 동기회장) 동문이 지난 10월 6일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 출전을 앞둔 경남고 야구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나무배트 30자루를 기증했다. 이날 경남고 교장실에서 전달식을 가진 정

동문은 “야구부 후배 선수들이 올해 남은 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가의 나무배트 채택은 선수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전광렬 감독과 상의해 이뤄졌다.

정 동문의 미담은 코로나19로 덕형리그, 기별야구대회 등이 무산돼 답답해하던 야구 애호 동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



정신(오른쪽에서 두 번째) 47회 동기회장이 경남고 야구부에 나무배트를 기증했다.

44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용마 자부심으로 버틴 세월, 가슴마다 '삶의 훈장'이...

“어느새 졸업 30주년,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되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세월 되돌아보니 질풍노도(疾風怒濤)였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만성적 경제난 등 갖은 위기와 고통을 겪고 이제는 코로나19 사태까지 온 몸으로 맞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고 세월에 굴복할 수 없었다. 우리는 모교에서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는 경남중고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31일(토) 오후 서면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가한 경남중고 제44회 졸업생들이 ‘눈’으로 전한 말이었다. 함께한 44회 동기생은 전체 졸업생 600명의 10%가 못 되었다. 이들 모두의 가슴에는 ‘삶의 훈장’이 걸려 있었다.

이날 1부 행사 기념식은 탁정환 행사준비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44회 동기생 김경진 동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안병규 동기회장은 “벽찬 마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사 개최 과정을 설명하고, 동기생을 비롯한 참가자들 모두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 안 동기회장은 “항상 경남고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살아왔다. 동창회를 통해 공정과 정의, 봉사의 정신을 배웠다”면서 “향후 10년, 20년, 30년 마지막까지 남는 게 동기생이다.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지켜봐주고 어려울 때 서로 밀어주는 친구로 남자. 모두 힘내 열심히 살자”고 말했다. 안 동기회장은 이 자리서 향후 매년 1회 은사초빙행사를 갖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참석 은사는 김영 남기호 박임철 안경건 이상훈 이외규 황경철 등 7분이었다. 안경건 은사는 대표 축사에서



지난 10월 31일 서면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44회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기념식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 집위원>

“꿈꾸고 희망 안고 달리고 달려온 친구, 잘 있었나” 살아온 이야기로 밤 지새며 즐거운 추억여행 만끽

44회 졸업생들의 학창시절 에피소드를 곁들이면서 “이제 나이 50세가 되었다. 남은 시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라. 효도하고 건강검진 꼭 받아 10년 후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경남중고 동문회의 미래를 밝히는 경미회에서 44회의 비중이 상당하다. 경남고 야구부도 44회 전광렬 감독의 지도하에 있고, 용마코러스도 44회가 핵심멤버로 활동 중이다. 44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기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전통을 이어준데 대해 감사하다. 임기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곁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44회 동기회는 박 총동창회장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동기생 임정훈, 전광렬 동문에게도 감사패를 전했다. 임 동문은

오랜 기간 동기회장을 맡아 동기회의 기틀을 다졌고, 전 동문은 모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존경받는 스승’으로 인정받는 게 자랑스롭다는 의미를 각각 담았다.

이 자리서 탁 행사준비위원장이 박 총동창회장에게 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총동창회는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하고, 머그컵·캘린더 등을 선물했다. 44회 동기회는 지난 4월초 경남고에 랩소드 타격교정기와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축하케이크 자르기와 건배제의, 식사가 이어지고 2부 행사로 들어갔다.

2부 행사에서 은사와 제자, 동기생끼리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은사들은 한 분, 한 분 무대에 올라 옛 추억과 제자에 대한 덕담을 전하고, 노래 실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44회 동기생들의 30년 추억여행은 남포동으로 이어졌다. 친구들이 기부한 선물을 한아름씩 안고 회포풀이 장소로 고고싱. 가수급 노래 실력으로 끼를 뽐내고, 삼삼오오 모여 살아온 이야기로 밤을 지냈다. 이들은 동이 틀 무렵이 되

어서야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뿔뿔이 헤어졌다. 다시 또 만날 날을 기약하고.

한편 44회 동기회는 기념행사에 앞서 모교와 총동창회관 방문 일정을 가졌다. 모교 경남고에서 만난 일행은 곧바로 30년 전의 친구로 돌아갔다. 많이 변한 듯하면서도 옛 모습은 간직하고 있었다. 추억여행의 시작이었다. 작은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교정은 묵묵히 세월을 이겨내고 동기생들의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모교를 뒤로 하고 부평동의 총동창회관으로 향했다. 기념촬영도 하며 경남중고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고액기부자 명판에 이번 행사준비위원장인 탁정환 동기의 동판이 부착돼 있어서 친구들은 총동창회관 건물이 친근감 있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 기념식에는 박 총동창회장을 비롯,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류명석(31회)·박근태(39회) 집행위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 롯데자이언츠 송승준(53회)·신본기(62회) 동문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45~54회 후배 동문 여러 명이 참석, 행사 진행을 도왔다. <기사 14면에 넘김>



총동창회관을 찾은 44회 동기생들.



경남고 덕형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44회 동기생들.

54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어느새 불혹? 추억 잇기 전 우린 만나야 해”



지난 11월 14일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기념식을 가진 54회 동기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졸업 후 어느새 20년이 훌쩍 흘렀다. 고1 당시 IMF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새 천년의 희망을 안고 모교를 나섰다. 달리고 달리며 살아가는 길을 배웠다. 세상의 이치를 조금 알만 하니 불혹의 나이가 되었다.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는다. 그것은 학창시절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자 추억이다. 자칫 그 기억들이 아스라이 사라질까 코로나19를 뚫고 ‘20년 만의 재회’를 성사시켰다.”

지난 11월 14일(토)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가한 경남중고 제54회 졸업생들의 심경을 표현했다. 학창시절 IMF에 갇혔고,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시달렸다. ‘세상이 왜 이래’라는 말이 나올만한데도 이들은 웃었고 정겨운 표정들이다. 꿈과 희망으로 뭉쳐진 경남중고인의 자부심을 소중히 간직해온 덕분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66명의 54회 동기생이 모였다. 13개 학급에서 629명이 졸업했다. 참석률 10% 남짓. 그만큼 할 일이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참석 은사는 하영일(18회 동문), 박효성, 강석원 3분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54회는 자신들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었다. 열정을 갖고 행동은 과감하되 신중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드러냈다. 힘든 시기 몇 번의 연기 끝에 이날 단호하게 ‘거사(巨事)’를 치렀다. 행사 진행 역시 달랐다. 시작은 댄스팀의 화끈한 퍼포먼스로 막을 올렸다. 이어 내빈 축사를 먼저 한 뒤 54회

행사 준비 최선 다하는 모습…선배 사랑 듬뿍
젊은 열정으로 새벽까지 뒤편이 행사 ‘고고싱’

동기회장의 인사말을 했다. 총동창회의 막내기수라는 점을 의식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 탓인지 졸업생 10%가 참석했다. 30주년 때는 참석률 20%가 넘도록 하자. 54회는 학창시절 IMF를 겪어 ‘삶의 내공’이 체득돼 있다”면서 “회관을 가지는 등 미래가 있는 총동창회를 구축했다. 경남중고 동문으로서 어디를 가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달라. 선배들과 교류는 자신에게 덕이 된다.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기대가 크다”면서 지구동창회에 참여를 조언했다.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은 참가 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뒤 “54회와 저는 35년의 나이 차가 있지만, ‘한 동문’이다. 끊을 수 없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언제든 총동창회관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내기’ 54회의 멘토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은 “열정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에 가슴 뻐뻐했다.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은사를 대표하여 하영일 은사는 “감개무량하다. 제자들이 훌륭히 성장하여 각 분야에서 인정받고 잘하고 있다는 소식에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말하고 “모교 재직 당시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부담감이 많았지만 열성을 갖고 교육에 임했다. 심하게 질책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하 은사는 재직 당시의 야구 관련 에피소드를 전한 뒤, 자신과 ‘경남’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경남중고 출신에다 경남중고에서 교직생활, 아들 이름도 ‘경남’, 거주지도 해운대 경남아파트라고 했다.

이어서 이날의 주인공 조중완 54회 동기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조 회장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 만나 반갑다. 학창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난다. 불혹의 나이가 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는다”면서 “코로나19로 ‘졸업 21주년 홈커밍데이’를 해야 하나 고심도 했는데 이렇게 행사를 치를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54회 동기회는 행사 준비에 노고가 컸던 김영빈 사무국장에게 순금 2돈의 선물을 선사했다. 박종찬 총동창회장, 우영환 경미회 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전하고, 찬조를 해준 정신(47회), 정

유석(51회), 김지운(52회) 동문에게는 고급백타이를 선물했다. 또 각종 동문 행사장에서 촬영작업을 묵묵히 해온 윤원욱(39회) 총동창회 사무국장에게도 정성어린 선물이 전달됐다. 기념식 행사장 입구에는 정유석 동문이 후원한 발열 체크기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날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사비로 50만원의 격려금을 전했다.

댄스팀의 아찔(?)한 댄스공연과 단체 기념촬영 후 2부 행사로 경품 추첨이 있었다. 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동기생들이 수고한 조중완 동기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54회 동기는 뒤편이 행사 2, 3, 4차를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진행했다. 얼마나 진하게 우정을 나누었는지 행사후기마저 자체검열 후 삭제했다나(ㅎㅎ). 그만큼 우정은 쌓이고 쌓였다.

한편 54회 동기는 이날 오후 3시 모교 경남고 방문 행사를 가졌다. 수능시험 전이라 교정 둘러보기는 못하고, 학교측의 배려로 덕형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곧바로 총동창회관으로 이동해 박 총동창회장의 환영을 받고, 층층을 돌며 미니역사관을 비롯한 회관 내 시설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경남중고인의 자긍심을 한껏 고취시켰다.

◇기념식 참석 내빈(직책 생략·기수 별)=남진현(19회) 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김종명(29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정윤희(36회) 윤원욱(39회) 배병훈 우영환(이상 40회) 손창오(45회) 서정민 정신(47회) 김정현(50회) 정유석(51회) 김지운 김현진 박선종 정상중 한중현(이상 52회) 김권우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최동환(이상 53회) 이육한 장지훈 정보영(이상 55회)

<기사 14면에 넘김>



총동창회관을 찾은 54회 동기생들.



경남고 덕형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54회 동기생들.

“라오스 의료체계 발전 위해 노력한 공으로 발탁”

부임 후에 의료봉사 계속...17개주에 병원 설립 추진
대한민국이 라오스 경제개발에 기여, 위상 높였으면
박총동창회장 추진력에 경의...활성화 기운 지속되길

임무홍(25회) 라오스 특임대사 인터뷰

임무홍(25회) 전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이 지난 12월 2일 라오스 특임대사로 전격 발탁돼 임명장을 받았다. 개인적 경사는 물론이고, 경남중고 동문 전체의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특임대사 임명은 라오스의 낙후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고 헌신해온 이타적 삶에 대한 세상의 평가로 해석된다. 임 특임대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라오스 특임대사라는 영광스럽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된 연유가 무엇인가요?

▲특임대사는 청와대에서 외교관 임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외교관 출신이 아닌 일반인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임명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라오스의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인들과 함께 노력한 게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오스와의 인연을 좀 소개해주시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약사포럼 여민락과 (사)아름다운사람들 두 조직이 라오스의 의료체계를 확립하고자 4년 전 1호 병원 분탄 자모병원, 그 다음해 깜빠네에 2호 병원을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두 곳 병원 모두 라오스 표준 시골 병원으로 지정되어 라오스 주민, 특히 오지의 주민에게는 의료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엔 분탄지역에 초등학교를 건립했습니다. 현재까지 여민락 병원 앰블런스 로고를 한 구급차 25대, 소방차 15대를 라오스 정부에 기증하고 장애인용 휠체어와 의료기기 및 학용품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임대사로서 어깨가 무거울 같습니다.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에 풀어나가야 할 현안 같은 게 있는지요?

▲라오스와 1995 국교가 재개된 이후 많은 관광객이 라오스 직장 항로로 다녀왔는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관

광은 전무한 편입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국교수교가 먼저 되었으나 현재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라오스 경제개발에 많은 기여를 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임 후 양국 간 교류 증진을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길 대목을 찾자면?

▲부임 이전부터 해온 의료봉사의 일원으로 현재 건립 운영 중인 병원 2곳 외 라오스 17개주에 병원을 설립하는 게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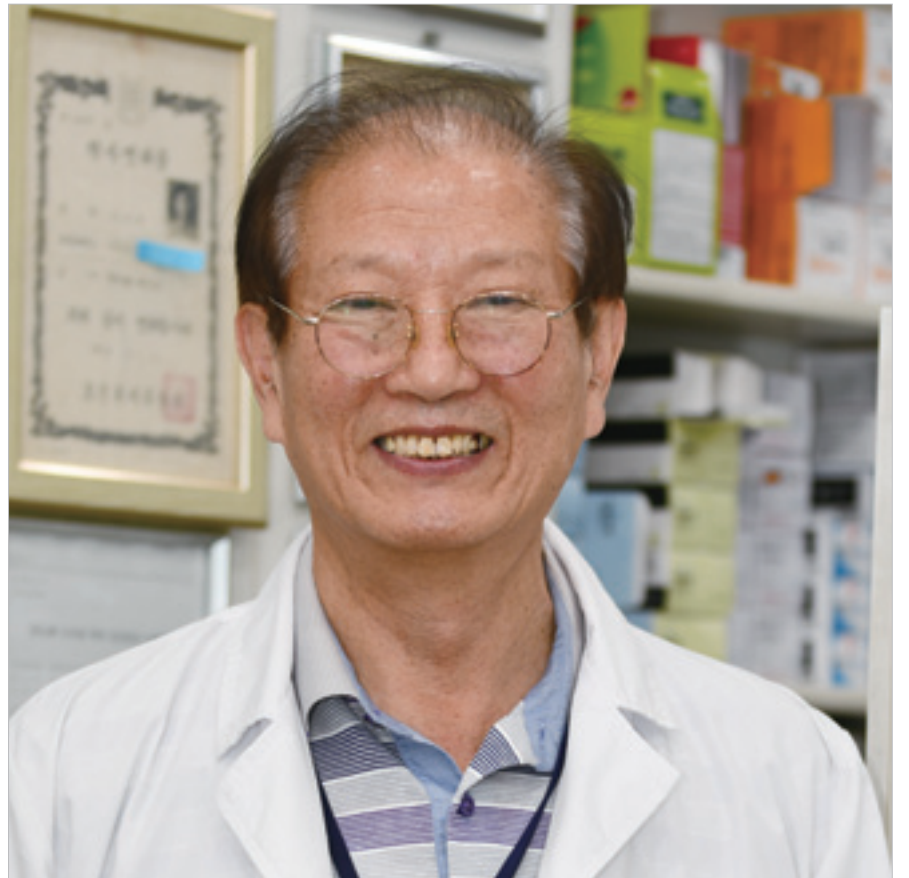
-라오스에 부임하셔서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라오스에는 고유문자가 있습니다만 태국문자와 70%정도가 동일합니다. 고위공무원은 영어로 소통하고 일반적으로는 통역이 동원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라오스 측 인사로는 생광주 국회의원인 빌라이숙입니다. 북한에 유학한 분으로 한국말에 능통하여 언어 소통문제는 원활하게 합니다.

-아열대기후와 음식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라오스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 아열대 기후입니다. 음식의 부패 방지를 위해 향신료가 강한 편입니다. 아직은 익숙하지 못한 편입니다.

-약사로 활동한 지는 몇 년 되었습니까?



라오스 특임대사에 임명된 임무홍 전 중부산지구동창회장이 자신이 경영하는 약국에서 흰 가운을 입은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서울대학교 약학대를 졸업한 후 개인 사업을 하다가 2006년에 약국을 개업한 늦깎이 약사입니다.

-(사)아름다운사람들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사)아름다운사람들은 현재 32년 된 전통의 봉사단체입니다. 국내에선 초읍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매일 32년째 무료급식을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무료급식 단체입니다. 자원봉사단체가 28개 되며 봉사자 3,00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네팔에 하얀토토병원, 라오스에 병원 2곳을 운영 중이며, 몽골에 구급차 외 의료기자재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산지구동창회장, 약사, (사)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같은 활동의 에너지가 나오는지요. 신념이랄까, 좌우명 같은 게 있는지요?

▲경남중고 중부산지구동창회 회장, 약

사포럼 여민락 상임 부회장, (사)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 열림포럼 상임대표 등 많은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속되어 있는 임원들의 숨은 노력이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의 조직 임원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그곳이 참된 자리이다)'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동창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주시죠.

▲현 박총찬 총동창회장님의 추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의 활성화 기운이 차기에도 계속 이어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임대사로 해외에 나가 있으면 건강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선무도를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도 나이에 장사가 없다는데 좀 더 세심히 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12면에서 받음>

◇참석자 명단=△44회-강경호 권상근 김항 김경진 김부건 김성훈 김수용 김을성 김정무 김지근 김해근 김형준 류병완 문형준 박중현 배봉건 배중세 서영민 석상봉 안병규 우도균 유홍식 윤상훈 윤성진 이군희 이대훈 이부교 이종식 임정훈 장원준 전광열 정도영 정상민 정영민 정의석 정종윤 정진식

정희정 제정완 조상화 조진현 조청현 차성민 최종혁 최주섭 최현덕 탁정환 하태욱 한수성 박재권 이영준 △은사-김영 남기호 박임철 안경진 이상훈 이외규 황정철 △총동창회-박중찬 남진현 옥동훈 김중명 윤원욱 △동문선후배-유명석 박근태 우영환 안승진 조경태 김상수 구자삼 조태성 송승준 신본기.

<기사 13면에서 받음>

◇54회 참석자(66명·경남고 졸업 학급별)=남준현 이성훈 이양래 임길환 임창섭 정준섭(이상 1반) 박경훈 이재진 이준일(이상 2반) 남승태 류종혁 문영섭 박신우(이상 3반) 강민승 강지범 김치현 이동준 이정수 정채화(이상 4반) 이흥진 제재철(이상 5반) 강인구 고훈 김대준 김상훈 김주량 박민철 박준영 선태규 전명진(이상 6

반) 김태규 김태완 박성배 박중원 손희원 장성민(이상 7반) 고지현 김규완 김영빈 손태준 안철민 양현진 이재필 이찬희 한병제(이상 8반) 김병조 김승택 송지홍 이동하 이형민 조정우 조중완(이상 9반) 염태환(10반) 김진욱 서영호 양형욱 엄도용(이상 11반) 김대진 박기홍 임성호(이상 12반) 서정호 석강훈 심재훈 이재하 이지훈 장진영(이상 13반).

어린이 만화잡지 ‘보물섬’조차 20만원에 인기리 거래



양수성(46회)의
古서적을 찾아서 ②

사인 없는 유명 작가의 진품도 알아보는 능력 길러야
컬렉터의 고서작품에 대한 존중존경, 정보확신 필요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차로 신고와 확인을 하니 당시까지 몇 번 보지 못한 시집이 한 권 있었습니다. 1935년에 간행된 ‘고향’으로 잘 알려진 정지용 선생의 ‘정지용 시집’이었습니다. 당시에 300만 원 이상 호가하는 아주 희귀한 시집으로 너무 깨끗했던 까닭에 그 서울의 딜러는 알아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때 10여 년 전의 일이 떠오르며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서울의 딜러와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두 번의 거래를 재미있게 한 듯 합니다.

판매자가 이런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거래한 일이 전라도 광주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술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까지 물건을 사러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순천과 전주, 광주는 다양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에 매주에 한번은 방문한 듯합니다.

어느 한 가게에 들어섰는데 입구에 아무렇지도 않게 널브러진 유화 3점이 보였습니다. 잠시 눈여겨보고 아버지는 가게로 들어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구매하기로 하고 계산을 끝내고 나오면서 그 고미술품점 주인에게 물어보더군요.

“박 사장, 밖에 있는 유화 3점 저건 뭘요?”

“아이고, 양 회장님(당시 고미술협회 회장을 역임) 그냥 선물로 드릴텐게, 가져 가쇼~잉.”

“그래도 그랄 수 있는고, 계산은 해야지.”

“아까 산 물건들 에누리도 안하고 다 사셨으니 이 물건 세 개는 그냥 깎은 걸로 칠 터이니~.”

미술품을 차에 한참 실은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며 제가 시집을 사며 지었던 같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수성아~, 저 유화 누구 작품인 줄 알겠냐?”

“사인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는데요?”

“임직순 선생 작품이야.”

“예?????”

임직순 선생은 충청도 출신의 작가이지만, 조선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며 광주에서 활동을 한 우리나라의 1세대 작가 중 한명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광주의 미술품 가게와 저는 그의 사인이 없어 알아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화풍으로 임직순 선생의 작품임을 확인했고, 그 작품을 지체 없이 구매했던 것이었죠. 이 세 개의 작품은 이후 유명 화상에게 팔려갔으며 한 전시관에 걸린 것까지 보았으니 정확한 사인은 없는 작품이었으나, 진품임에 틀림이 없었죠.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 진품의 가부와 작품의 가치를 재서 경제적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책들을 보고 학습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는 직업이기에 옛날 아버지의 공부하던 모습을 뒤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 전부터 가치가 반등한 고서들이 있는데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장르의 고서인 만화책입니다. 만화책은 암암리에 하나의 공식이 뒤따릅니다. 일제강점기의 만화책은 호가대로, 해방공간의 만화책은 1천만원 이상, 50년대 만화책은 몇백만원, 60년대는 최소 몇십만원에 거래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약간 그 가치가 떨어졌지만 여전히 인기가 좋은 아이템입니다. 만화 수집가가 많다는 사실은 의외이지요.

서울의 한 딜러가 1980년대에 문을 닫은 시골 만화방 한 곳을 통째로 사들여 강남에 빌딩을 샀다는 이야기는 장삿꾼들 사이에 공공연히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30회 후반 선배님이나 50회 초반의 후배님들까지 ‘보물섬’이라는 옥영재단에서 간행한 어린이 만화잡지를 아실 겁니다. 이 ‘보물섬’조차 20만원 내외로 거래가 되니 옛날 만화책의 인기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보물섬’이 비싸니 혹시나 옛날 집에 있으면 잘 챙겨놓으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한 친구가 길을 걷다 고물수집을 하는 어르신



왼쪽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만화책 보물섬, 정지용 시집, 임직순 화백의 그림, 양달석 화백의 그림



의 리어카에서 세 뭉텅이의 ‘보물섬’을 발견했습니다. 참말로 비싸게 팔릴려나 확인 차 저에게 전화했지만 저는 당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보물섬’들의 가격을 얼마에 사야 될지 몰라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저기 묶어놓은 잡지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얼마에 사실까요?”

“한 오만원이면 되겠습니까?”

어르신은 다른 말도 하지 않고 그 묶여 있는 잡지들을 친구의 집 근처까지 끌어줬습니다.

사실 파지 값으로는 오천원도 되지 않았기에 어르신은 황재했다고 생각하시고 파셨겠지만, 그 친구는 더 큰 황재를 했지요. 한 중고 사이트에서 몇 십배의 차액을 남기고 그 ‘보물섬’을 다 팔았으니 말이지요.

저의 스승인 아버지는 항상 ‘물건을 정직하게 팔아야 된다’는 말씀을 늘 하셨죠. 그 정직함으로 인한 이야기는 아버지께도 많이 들었지만,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직에 있었다고 밝힌 한 어르신의 전화에 저는 고서를 구입하러 동래지역으로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고서들은 아니었지만 일반 수집가들이 좋아할만한 책들이 많아 구입하기로 하고 책을 정리하던 중에 10폭짜리 병풍 한 틀이 보였습니다. 양달석 선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양달석 선생은 거제 출신으로 부산에서 주로 활동한 작가로 ‘목동’ 이미지로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 작품도 살 수 있느냐고 물으니, 물론 팔 수는 있는데 미술품 딜러가 가짜라고 말하며 30만원을 주겠

다 하여 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0만원에 팔 바에야 가짜라도 들고 있겠다 하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친했던 양달석 화백의 작품을 워낙 많이 봐왔던지라 진품이라 확신하고 열배의 가격인 300만원을 드리겠다고 하니 그 어르신 내외가 그냥 30만원만 주고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던 그 두 분은 먼저 왔던 그 미술품 딜러의 행동에 기분이 나빠 있었는데 제 덕분에 미술품 딜러가 사기꾼만 있지 않구나라고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어르신들의 권유에, 조금은 약했던 그 미술품 딜러 덕분에 아주 싼 가격에 양달석 화백의 작품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서들과 다른 작가의 작품들도 함께 말이지요. 진품임을 확신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고견을 물으니 아주 잘 그려진 양 화백의 작품이 맞다, 라는 말에 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일들에서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컬렉터와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서와 작품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 그리고 작품들에 대한 정보와 확신 등은 제가 하는 사업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존중, 존경 등은 직업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겨울의 서늘함이 몸과 마음을 움츠려들게 만들지만 언제나 동문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영학(26회) 신임 회장 취임 “열심히 하겠다”

임무홍 전 회장, 라오스 대사 발령...“지지 감사”
중부산지구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취임사를 발표하는 이영학 중부산지구 신임 회장.

경 남 중 고 중부산지구동창회 임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1월 27일(금) 오후 충

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열

렸다. 이날 모임은 개최 의미와 비중이 컸지만 코로나19의 기승으로 소수인원 참여로 진행됐다. 임무홍(25회) 전 중부산지구 회장이 라오스 특임대사로 발령이 나 부임지로 떠나야 하는, 시간적 촉박성으로 행사를 미룰 수 없었다.

이날 행사에서 임 전 회장은 부임 준비로 불참하고 이임사를 전달, 대독케 했다. 임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라오스를 위해 많은 후원과 봉사를 하였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라오스와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중부산지구 동문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 떠나게 돼 감사하다. 중부산지구 창립 초기부터 헌신해온 이영학(26회) 신임 회장에게 자리를 물려줘 자랑스럽고 마음 든든하다”고 말했다. 임 전 회장은 이임

사에서 임철호(24회) 초대회장이 제안하여 중부산지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건배삼창 ‘위하여’와 박수 세 번의 퍼포먼스, 가덕도 1박2일 야유회, 구덕산 산행 및 족구대회 등 동문 선후배간 나누었던 우정의 시간을 회고하며 ‘정리(定離)’의 아쉬움을 표출했다.

이영학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 위치적 측면에서 모교와 충동창회가 가까이에 있고, 원도심에 자리한 중부산지구동창회는 동문들의 ‘고향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한다. 소통 부족으로 노소간 세대갈등과 동문간 의식 상충이 존재해 동문 화합이 저해되었다. 충동창회관이란 지원시설을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 동문 화합을 추구하겠다. 그리고 더딘 세대교체의 시간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찬(25회) 충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중부산지구는 회원수에 비해 모임의 횟수와 참가자가 적은 등 활동이 다소 미약했다. 유능한 신임 회장 체제를 맞아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충동창회관이란 ‘명작’을 가진 지구인 만큼 중부산지구 동문들이 많이 이용하고 성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충동창회

관 건립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퇴임한다. 앞으로 고문으로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임철호 전 회장은 축사에서 “신의 있고 의리가 있는 동창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창립 초기 때부터 고생한 이영학 회장이 잘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자리서 중부산지구 새 집행부 인사가 있었다. 행사를 마치고 충동창회관 1층 우미옥 식당에서 축하연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동래·금정, 부산진·연제, 사하, 해운대 등 4개 지구회장단이 축하단으로 참석하고 금일봉을 전했다. 충동창회는 이날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영학 중부산지구동창회장 10만원, 박종기 28회 동기회장 10만원, 박이현(38회) 중부산지구 부회장 차(茶) 값 찬조.

◇참석자=△중부산지구 회원(직책은 신임)-장상진(16회), 강부덕(20회),

임철호(24회·초대회장), 서보민(25회) 감사, 이영학 회장, 이광태(이상 26회) 기획자문, 안풍 부회장, 김용원(이상 28회), 정순길(30회) 부회장, 김형권(37회) 박이현(38회) 부회장, 안승진(39회) 부회장, 이정삼(40회) 부회장, 전삼록 재정국장, 서상대, 이양걸, 성찬기(이상 41회) 사무국장, 김영휘(43회), 김형준(44회) 복지국장, 권우일(45회) 기획국장, 육한수(46회) 사무차장, 채현철(50회) 사무차장, 양현진(54회) 복지차장. △충동창회-박종찬(25회) 충동창회장, 남진현(19회) 충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박종기(28회) 동기회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류명석(31회) 집행위 부회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지구동창회-동래·금정지구 이웅길(32회) 부회장·김현오(42회) 조직국장, 부산진·연제지구 이윤조(33회) 회장·김병기(39회) 사무국장, 사하지구 최승호(36회) 회장, 해운대지구 정윤희(36회) 회장·김태호(38회) 사무국장.



충동창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가진 중부산지구동창회.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조출한 자리, 그러나 우린 살아 있다”

남부산지구 송년모임, 재회의 기쁨 넘쳐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평가받는 남구 용호동에서 남부산지구동창회 11월 정기모임 겸 송년회가 열렸다. 역병으로 인한 불안과 불편으로 한해가 마무리되기 전 회원들간 얼굴이라도 한 번 보자는 심정으로 모였다. 지난 11월 18일 오후 이가한우(42회 정용중 동문 운영) 행사장에 모두 28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시국을 고려, 밴드 공연만으로 자발적 참석을 유도했다.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말 반갑다. ‘세상이 왜 이래’라는 나훈아의 ‘테스형’이 감동을 주고 있다. 코로나 정국이란 희한한 세상을 만나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가 다가는 오늘 조출하지만 안전한 곳에서 오랜만에 편안히 이야기 나누자”면서 “남부산지구는 조용했지만 살아 있다. 어려운 시기를 기회라 생각하고 변화

하자”고 호소했다.

남진현(19회) 충동창회관장은 “남부산지구가 동창회 맥을 줄기차게 이어가고 있다”면서 집행부의 결단에 감사를 표한 뒤, 참석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날 1부 행사에 불참한 박종찬(25회) 충동창회장에 대한 찬사의 시간을 가졌다. 남 충동창회관장은 “박 충동창회장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리더십과 추진력이 없었더라면 회관 건립은 불가능했

다. 35년간 충동창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15명의 회장을 모셨는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었다. 정말 대단한 분으로 고맙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다. 다음 회장들도 본받았으면 한다. 그가 자리에 없어도 박수를 보내자”고 극찬했다.

이날 참석자 중 막내기수인 고지현(54회) 동문은 “54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잘 치렀다.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전통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부 행사에 참석해 연호의 환영을 받은 박 충동창회장은 “지구동창회가 뿌리를 내려야 충동창회가 잘 된다. 임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겠다. 차기 회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면서 “차기 회장을 많이 도와 달라. 각종 모임에 자주 출석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충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했다. 강서지구동창회(회장 김택영·26회)는 최우영(51회) 재무차장을 파견, 협찬금을 보내왔다. 박 충동창회장은 2부 행사 주류대를 찬조했다.

◇참석자(직책 생략)=남진현(19회)

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김용석 임상규(이상 28회) 김종명(29회) 김형수 백영태 이종휘(이상 32회) 김종만 장정석(이상 33회) 조선(34회) 김정현(36회) 김성일 신창기(이상 37회) 박용한 윤원욱 이상학 정우영 최보식(이상 39회) 정용중(42회) 조청래 최상배(이상 45회) 김석훈(50회) 오성진 최우영(이상 51회) 문희규(53회) 고지현(54회).



지난 11월 18일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남부산지구동창회 정기모임 겸 송년회가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강서지구 신임회장 김종규(31회) 동문 선임

12월 17일 총동창회관에서 이·취임식



강서지구동창회 신임 회장에 김종규(31회·사진) 부회장이 선임됐다. 강서지구는 최근 이사회 주요 안건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면서 만장일치로 김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가결했다.

2021년 새해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

차기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모교사랑, 선후배사랑만은 누구 못지않다는 것을 선후배님들이 알아주신 것 같다. 부족한 점은 선후배님들이 매워 주실 것이라 믿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보람있고 재미난 동창회 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서지구는 회장 이·취임식을 오는 12월 17일(목) 오후 총동창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강서지구동창회는 지난 11월 1일 강서지구리틀야구단과 지원협약식을 가졌다.

지역 리틀야구단과 지원 협약식

강서지구동창회, 사회공헌에다 동문 후원 실현

강서지구동창회(회장 김택영·26회)가 지난 11월 1일 오후 강서지구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 전용구장에서 리틀야구단과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지역사회에 대한 경남중고 동문들의 사랑과 봉사, 여기에다 리틀야구단 감독이 이정우(51회) 동문이라는 점에서 동문 후원의 뜻도 내포돼 그 의미가 상당하다. 특히 아이들이 예의바르고 활발하여 좋은 희망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이 감독의 지도력이 높이 평가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서지구는 향후 리틀야구단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서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협약식에 이어 강서지구동창회와 리틀야구단과의 친선경기가 진행됐다. 리틀야구단이 4 : 3으로 승리. 병살타 처리, 무실책 등으로 수준 높은 경기를 치렀다는 자체 평가가 있었다.

◇찬조 내역(직책 생략)=김택영 야구용 스타킹(10만원), 백영호(28회) 건강음료 100개, 김종규(31회) 암가드(5만원), 김창범(32회) 풋가드(5만원), 정재형(38회) 배팅장갑(5만원), 김성준(44회) 초코파이+식수.

몸보신 산상월례회 “정겨운 동문들”

김해지역동창회, 산행하고 염소고기 뒤풀이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10월 17일(토) 김해천문대~만장대농원 코스로 월례회를 겸한 산행행사를 가졌다. 코로나19 청정지역답게 지난 여름철 1박2일 원정 월례회에 이은 연속 야외 활동이었다.

차의수(29회) 김해지역동창회장은 “코로나19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선후배들이 만나 산행을 통해 가슴 한 번 크게 펴고 호연지기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날 산행과 족구경기를 펼친 뒤 ‘염소고기 뒤풀이’를 가져 허한(?) 체력을 보충하면서 동문간 우애를 더욱 공고히 했다. 손균호(40회) 동문이 20만원, 이상현(45



김해지역동창회는 지난 10월 17일 월례회를 겸한 산행행사를 개최했다.

회) 동문이 5만원을 찬조했다.

◇참석자=이상운(23회) 박광수 박희규 차의수(이상 29회) 황성철(31회) 박원곤 이원천(이상 32회) 정희태(34회) 신동해 최민석(이상 35회) 김규선 김용진(이상 36회) 김기덕(37회) 손균호 손옥명 이남주(이상 40회) 조영호(44회) 이상현(45회) 신현식(51회).



지난 10월 26일 집행부 모임을 가진 뒤 인근 찻집에서 환담을 나누는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조직 응집력·회원 결속력 복원하자”

부산진·연제지구 집행부, 코로나19 돌파 모색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서면 급행장차이나 식당에서 집행부 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다소 느슨해진 조직의 응집력과 회원간 결속력을 복원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송년회 이후 이날 현재까지 공식 모임을 갖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탓에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윤조(33회) 부산진·연제지구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지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 모임 개최가 힘들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연말쯤 나온다고 하니 기대를 건다. 가급적이면 송년회를 갖도록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부산진·연제지구를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모임 개최가 없으면 모임의 역사가 단절되고, 동문 단합이 영향을 받게

된다. 몇 개 기수 단위로 나눈 소모임을 몇 차례 열더라도 가능하면 모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보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 이춘기(8회) 원로 동문이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 참석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학창시절 농구 선수로 활약한 이 동문은 옛적의 경기 경험 등 기억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이날 집행부 참석자들은 모임 활성화와 명실상부한 ‘부산의 중심’이 되기 위한 지구 위상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날 행사 경비 일체를 사비로 찬조했다.

◇참석자=△부산진·연제지구-이춘기(8회) 원로동문, 이윤조(33회) 회장, 박진용(36회) 수석부회장, 김병기(39회) 사무국장, 백기현(39회) 홍보국장, 손창오(45회) 사무차장, 김정현(50회) 재무차장 △총동창회-박종찬(25회) 회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최일진(31회) 현 회장 임기 1년 연장”

강태원(36회) 동문에게 회관 3년 무상임대
울산지역동창회 이사회 의결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3차 이사회를 울산 남구 만상한정식에서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동창회관 활용 승인 △회칙 일부 개정 △회장 임기 등 3가지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동창회관 활용 건은 보수 및 수리 후 사용(견적가 243만원)을 조건으로 강태원(36회) 동문에게 3년간 무상임대하는 내용이다. 여행사를 운영하는 강동문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회칙 개정은 비대면회의를 통해서도 의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회장 임기 사항은 최일진(31회) 현 회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3차 이사회를 울산 남구 만상한정식에서 열었다.

장 임기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안이다. 부회장, 감사도 임기를 1년 연임키로 했다.

◇참석자=권기택(28회) 설옥일 박성철(부산) 장기호(이상 32회·부산) 이순환(33회) 김인수(35회) 강태원 박성만 박철중 정윤희 제갈재환(이상 36회) 오희진(38회) 이현 정영인 정용구(이상 44회).

◇찬조=박성철(32회·부산) 10만원

종합적 개념의 부동산 개발로 사업영역 확대

“활력과 혁신”
용마인의 삶터

④

고려개발그룹 회장
박명진(33회) 동문

-우선, 경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초, 중, 고를 거쳐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1사단 헌병대 중위로서 병역을 필하였습니다. 부산대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연세대와 부산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도 수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해상공회의소 제12대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태국 명예영사로 서도 봉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ALP총동창회 회장, 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합회장, 부산시체육회 사격연맹 회장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고려개발 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려개발주식회사의 주된 사업은 주거 및 상업시설 개발이며 관광·휴양·문화건축 사업 등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로서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주), 에이치비관광리조트(주), 에이치비힐링타운(주), 에이치비종합레포츠(주), (주)고려디앤씨, (주)유엘아이프로퍼티, 아이스퀘어호텔, 아이스퀘어쇼핑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0년, 김해시 부원동에 부원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아이스퀘어 복합단지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아이스퀘어 복합단지는 대지 82,645㎡(2만5천평)에 연면적 330,579㎡(10만평)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김해 최초 5성급 특급호텔인 ‘아이스퀘어호텔’을 비롯하여, 1천 세대의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및 복합쇼핑몰이 입주하였습니다. 이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은 우리 그룹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기반을 닦은 고려개발은 3년 전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있는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를 인수했는데, 이는 관광, 휴양 등 종합적 개념의 부동산 개발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리조트단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이 단지는 배산임수 지형이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인터뷰 내내 차분하고 겸양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박명진(33회) 동문은 오로지 부산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장성한 순수한 부산 토박이이다. 법학을 공부하고 건설회사에 첫발을 디디면서 3년의 수련을 거친 후 사회로 본격 진입한 박 회장은 10년 전,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과감히 착수하여 성공을 거두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줄 천직을 찾았음을 예감했다. <편집위원 박종기(28회)>



김해지역 복합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이 고려개발그룹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밝히는 박명진(33회) 고려개발그룹 회장.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천혜의 입지 해운대비치 리조트단지에 많은 애착 하루하루 열심히 하며 겸허한 마음가짐 가져야

는 대한민국 상위 0.1%의 VVIP를 위한다는 자부심으로 건설한 훌륭한 시설의 리조트가 있는데, 기장군 청정지역의 산을 등 뒤로 놓고 모든 객실이 동해의 명품 경관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했던 고객들께서는 ‘눈앞의 풍경이 그림이 되고, 나누는 대화가 노래가 되고, 자연 속 일상이 영화가 되는 곳’이란 소감과 찬사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내년에는 에이치비관광리조트(주), 에이치비힐링타운(주), 에이치비 종합레포츠(주)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7만2천여㎡(2만2천평)의 부지에 국제적인 규모의 대단위 종합리조트 사업을 수천억원대의 자금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3만8천㎡(1만1천500평)의

휴양오락사업부지, 7만여㎡(2만1천500평)의 종합레포츠사업부지도 순차적으로 개발해 나감으로써 풍요로운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가치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큰 사업을 펼치게 되기까지 어떤 역정을 거쳐 오셨는지요?

▲부산대 법대 수학 중에 법관을 꿈꾸며 학문을 이어가던 젊은 시절에, 종합 예술에도 관심이 있었던 저는 법과 예술을 융합할 수 있는 일을 소망하였습니다. 군 예편과 함께 롯데그룹에 입사하여 3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하여 건설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건설과 개발사업은 학창 시절의 꿈과 잘 맞았으며, 그 일에 대해

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인생도 사업도 관건은 타이밍이라는 생각,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매진해 왔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는 분명히 주어진다고 믿은 신념 덕분에 현재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펼쳐오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사업을 시작한 지 30년 동안 가끔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조가 호수를 유유히 떠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도 실은 물 아래에서는 물갈퀴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즉, 기회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잡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잘 관리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쁜 순간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김해에서 랜드마크라 불리는 5성급 아이스퀘어호텔과 복합쇼핑몰을 오픈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외부 손님들에게 도시적 문화와 품격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문화공간을 김해시 최초로 제공했던 때입니다.

-사업들이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분야가 많아서 최전선에 일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사원복지와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기업의 경쟁력은 직원에서부터 생겨나고, 특히 서비스업종은 직원의 주인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직원들과의 소통과 따뜻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 직원 복지제도도 상호 눈높이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만족하는 직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로서, 슈퍼마켓은 슈퍼마켓으로서,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있듯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은 늘어납니다. 기업은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사회라는 밑바탕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그 기업의 규모에 맞게 사회로 환원하고 공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19면에 넘김>

‘기회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 잡는다’며 매진

〈기사 18면에서 받음〉

저는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기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여 창원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과 창원검찰청 범죄방지자문위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체육회 종목단체장연합회 회장, 부산시체육회 사격연맹 회장 직책도 체육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취임하는 부산대 총동창회장 직책 역시 학교의 발전과 선후배의 단합을 위하여 봉사할 기회를 받았다는 심정으로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좀 특이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위하여 휴머니즘에 입각한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 중
인 후배들에게 최고경영자로서의 조
언을 부탁드립니다.

▲ ‘군군 신신 부부 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논어 안연편)라는 경구처럼, 사원일 때 사원답게 뒤편 배우겠다는 자세로 주어진 일에 충신했던 사람이 결국 CEO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꿈이 있다고 막연히 꿈을 꾸는 것보다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씩 실천하면서 올라서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거대하고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 보다는 하루하루 열심히 하면서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스스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기회로 돌아오고 하찮은 일에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겸손한 자세와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저 또한 이를 항상 명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가이든 사업가든 모든 분야에서 변함 없는 겸손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지만, 겸허함을 잃는 순간부터 서서히 자신이



사업영역 확대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에서 박명진 고려개발그룹 회장이 웃고 있다.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 내 입주 고객과 내빈을 위한 북카페 및 갤러리 정경.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침몰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가는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

▲지난날은 사업에 시간을 집중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시간을 소비적으로 봤지만, 지금은 자신을 가다듬는 생산적인 시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건강체질이라 체력에는 자신이 있어서 운동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부산시 사격연맹 회장을 맡을 정도로 사격을 좋아합니다. 또 리조트를 운영하는 바람에 골프가 운동이 되기도하고, 곳곳에 헬스장비를 비치하여 시간 날 때마다 Fitness를 합니다.

사업 구상을 위한 정신적 여유를 가

지기 위하여 영화감상, 음악감상, 미술작품 등 문화 예술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의 리조트와 호텔에도 유명작가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있으며, 특히 리조트에는 갤러리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회원이나 손님들에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도 관심이 큼니다. 현재 유명 드라마에 상당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제가 투자한 작품이 성공하여 칸이나 베니스영화제에 제작자로서 레드카펫을 밟고 싶은 작은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좌우명은?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정성을 다하

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다음, 겸허한 마음으로 결과에 승복하며 끝없이 반성한다는 점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 또한 되돌아 봤을 때 부족한 노력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더욱 더 자신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장님은 자랑스런 경남중고 동문
입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을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배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후배에
게는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평소 생
각하고 계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정과 패기를 가지신 박종찬 회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동창회 선후배의 결속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탄하고 많은 것을 배웁니다.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모교를 사랑
하는 마음을 본받으며 항상 예의 있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잘 모시고, 선배님
역시 후배들의 생각을 찬찬히 살펴서
소통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선
후배가 다 같은 생각일 수는 없으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
상 예의를 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피
력한다면 선후배의 그 공감된 뜻은 동
창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문 상호간 우애를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더욱 기여하며, 자량이 되고, 참여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경남 중교 총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문님들 모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문님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총동창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기대하면서, 여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항상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동문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박명진(33회) 동문, 태국 명예영사 임명장

박명진(33화·김해
상공회의소 회장·고
려개발 그룹 회장)
동문이 지난 11월
18일 서울 주한 태
국대사관에서 롬마
니 카나누락 태국 대

사로부터 명예영사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 박 동문은 2018년 한·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명예영사로 내정된 이후, 영남권을 무대로 양국의 문화, 체육, 경제 등 다방면에서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년 5월경 취임

식을 가질 박 회장은 “한국에 체류하는 19만명의 태국인의 신변 보호와 양국의 무역과 우호 증진에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태국의 인구는 약 7천만명, 면적은 51만3120km²로서 남한보다 5배 넓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무역의 허브(hub)역할을 하는, 아세안 10개국 중 2위의 경제대국이다.

‘위스키 여행’에 쌓이는 동문에

박 총동창회장 “거듭할수록 강좌 수준 좋아져”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이 퇴임을 앞두고 후배 격려와 선후배 결속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40회 이후와 함께하는 30년산 위스키 여행’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다. 추석 시즌을 쉬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 일요일 7차례의 행사가 치러졌다. 8월 30일부터는 총 12차가 열렸다.

박 총동창회장은 “횃수를 거듭할수록 강좌 내용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후배 참석자들의 술 취향을 고려, 귀한 위스키들을 더 구매해 선보이고 있

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휴일날 쉽없이 후배들을 위해 멋진 자리를 만드는 그 열성과 헌신이 고맙고 존경스럽다”고 이구동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참석자 ▲6차(10월 18일, 45회와 그 외)=김상수 조태성 권우일 조청래 구자삼 최상배 이광석 손창오 김진수(이상 45회) 정윤성 김동일 박창제(이상 35회) 박성철(29회) ▲7차(10월 25일, 46회와 그 외)=김백권 최원석 신정일 김희택 이성민 김대기 서승진 양수성(이상 46회)

정윤희 이창 양호진(이상 36회) 김대욱(29회) ▲8차(11월 1일, 47회와 그 외)=정신 정민호 장순재 감기환 이호정 조덕만 성상용 최경훈 이승택(이상 47회) 박성철(29회) ▲9차(11월 8일, 48회와 그 외)=김태균 김춘호 고석민(이상 48회) 권두성 정재형 김태호 김경곤 이수관 오희진 김현민 신동훈(이상 38회) 박성철

(29회) ▲10차(11월 15일, 49회와 그 외)=최진영 이승일(이상 49회) 박근태 우형철 이준영 박인석 이상학 김종엽(이상 39회) 박종기(28회) 서강태(30회) ▲11차(11월 22일, 50회와 그 외)=김정현 김동현 박종현 정재우 김재호 이종환 김석훈 구민수 이상준 윤종선(이상 50회) 정용운 백영태(이상 32회) ▲12차(11월 29일, 51회)=정유석 구민석 이진영 이정우 김동주 송상민 최우영 박보순 신석진 오성진 신혁휴.



박종찬 총동창회장이 자택에서 마련한 ‘위스키 여행’에 참석한 45, 46, 47, 48, 49, 50, 51회 동문들과 선배들(사진 왼쪽부터 위에서 아래로).

“걷다 보니 황홀한 자연이 눈에 들어왔다”

박홍규(24회) 동문, 고희에 첫 사진전시회

“걷기를 많이 하다 보니 자연이 펼쳐는 아름다운 순간들이 점차 눈에 들어왔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폰에 담았다.”

지난 10월 19~24일 부평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 ‘사진 5인전 흰여울의 꿈’에 작품을 출품한 박홍규(24회·소아과 의사) 동문의 말이다.

올해 봄 나이 70에 해파랑길 770km를 완보해 주목을 받았던 박 동문. 직업은 의사이지만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쏟고 마니아급 경지에 올랐다. 사회 봉사 활동 역시 분주하다. 수십년째 무의촌 의료봉사를 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몇 해 전부터는 부산한일친선협회 회장을 맡아서 한일우호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등산도 즐겨 구덕산우회 회장을 몇 년 맡았었다. 아마추어 무선통신 햄(HAM) 활동도 하고 있다. 이제는

사진까지 섭렵하는 중이다.

박 동문은 이제 나이를 고려해 등산보다는 걷기를 더 즐기는 편이다. 그냥 걷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삶의 긴 궤적에서 쌓인 연륜이 잠재된 심미안을 깨운 걸까? 자연이 연출하는 ‘황홀한 기적(奇跡)’의 순간들을 담고 있다. “걷다 보면 간직하고 싶은 정경이 있다. 순간 폰에 손이 간다”는 박 동문이다. 최근 부산 갈맷길 278km를 완보한데 이어 연말에 제주도 올레길 425km 완보를 계획 중이다. 좋은 사진작품을 얼마나 남길지 기대가 크다.



박홍규(가운데) 동문 사진전시회를 찾은 박종찬 총동창회장(오른쪽)과 박종호 집행위 부회장(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박 동문은 이번 ‘사진 5인전’ 멤버인 사진작가 김탁돈(전 국제신문 사진부 기자) 씨의 지도를 받아 4년 전 입문했다. 김 씨는 “걸으면서 담고 싶었던 것을 내놓았는데, 작품 속에 자신의 깊은 내면세계가 자연 현상으로 표출돼 나왔다. 잠재력을 느꼈다. 현재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총동창회관 기금 모금에서 고액기부를 한 바가 있는 박 동문은 지리산 부근 무의촌 무료진료 봉사를 20여년째 해오고 있다. 그 덕에 함양군 명예군민 1호가 되었다. 마냥 베풀며 착하게 산 것도 아니다. 술친구도 여럿 있어 인생을 즐겁게 살아왔다. 이들은 ‘부산문화예술

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양산박’(1980년대 남포동에 존재했던 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 같았던 식당 겸 술집)을 애용한 주당(酒黨)이 대부분이다. 이 중 33인이 모여 1987년 말 부산문화예술인을 돕자며 ‘아사달’이란 단체를 결성, 활동해 왔다. 회원 수도 많이 늘었다. 지금은 겨울철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 함께 출품한 4명 역시 40년 지기(知己)의 양산박 술친구들이다. 모두가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이기도 하다. 사진전 타이틀 ‘흰여울의 꿈’은 영도 흰여울마을에 마련한 이들의 아지트 생활을 투영하고 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죽마고우(竹馬故友)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고 보니 고희(古稀)인 박 동문은 무척 동안(童顏)이다. 순수하게, 베풀며, 즐겁게 살아온 인생이 그의 얼굴에 오롯이 담겨 있다. 박 동문은 선(善)한 용마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 서울 동작구 소재 '김영삼도서관' 개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지난 11월 20일 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렸다. 이날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사진 오른쪽)도 열렸다. <사진 제공=김영삼민주센터>

고(故) 김영삼(3회)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이 지난 11월 20일 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거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



사를 비롯한 유족, 여야 유력 정치인, 경남중고 동문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김 전 대통령의 유훈을 받들어 '대도무문의 통합의 시대를 열자'고 이구동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추도식에 이어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김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아버님을 향한 송구함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용마코러스 연주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가을연가’에 그리움만 쌓이고...

비대면 연습 애로, 우정으로 극복...큰 감동

용마코러스 제4회 정기연주회

‘코로나19 시국에 짓눌려 만남의 시간이 제어된 2020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 할 새도 없이 가을은 속절없이 깊어만 갔다. 그 행한 가슴에 그리움의 선율이 채워졌다. 그리움은 다시 사랑의 불꽃으로 피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24일 오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열린 용마코러스 제4회 정기연주회를 관통한 인상기(印象記)이다. 비록 관객은 100명이 채 못되었으나 진한 감동을 안겨준 연주회였다.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을 첫 곡으로 연주, 관객들의 가슴에 ‘가을연정(戀情)’을 풀어놓았다. 또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를 마지막 연주곡으로, 나훈아의 ‘홍시’를 앙코르곡으로 불렀다. 세파에 한동안 밀려나 있던 사랑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도록 만들었다. 코로나19의 횡행으로 메말랐던 감성의 샘에 물결이 일었다. ‘노래의 힘’ 덕분이다.

보다 정제된 남성합창단의 중후한 목소리는 가을을 타는 듯했다. 코로나19

로 모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연습으로 이룬 합창공연이었다. 이렇게 해서 갖게 된 연주회니 코러스 단원들의 북받쳐 오르는 감정은 더 강렬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관객들은 이를 오롯이 받아들였다.

테너와 바리톤 두 성악 전공 합창단원의 무대는 용마코러스의 격조를 한껏 높였다. 동문합창단의 기량 향상을 위해 봉사하려고 참가했다가 이제는 단원들과 정이 들어 아예 합창단의 초석이 되었다. 바로 용마코러스의 저력이다.

방송인 박시현 씨의 사회로 연 첫 무대에서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시간에 기대어’ ‘푸르른 날’이 연주됐다. 계절의 변화 속 그리움이 넘쳐났다.

두 번째 무대. 미성(美聲)의 테너 노재훈(50회) 동문이 애절한 꿈을 노래한 ‘Après Un Réve(꿈 끝 후에)’와 오페라 ‘카르멘’ 중 ‘당신이 나에게 던져준 꽃을’ 두 곡을 서정적이며 감미롭게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세 번째 무대.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로’, ‘경복궁타령·도라지’가 연주됐다.

네 번째 무대. 중후한 매력의 바리톤 전상건(35회) 동문이 가곡 ‘산촌’과 이태리가곡 ‘Musica Proibita(금단의 노래)’를 걱정적이면서 맛깔나게 불러 갈채를 받았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무대. 오페라 ‘투란도트’의 아리아 ‘Nessun Dorma(아무도 잠들지마라)’,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사랑으로’가 연주됐다.

연주회를 시작하면서 최상규(31회) 용마코러스 단장은 인사말에서 “동문회를 대표하는 합창단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자부심이 이번 공연을 갖게 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느끼는 힐링과 기쁨의 강도가 크다. 이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많

은 격려와 성원을 당부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용마코러스 정기공연이 무산될까 우려했다. 매년 정기공연의 전통을 지킨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더 많은 동문의 코러스 참여를 기원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재경동창회 용마코러스의 김형국(22회) 단장과 허훈(13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총동창회 용마코러스의 정기연주회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참고하겠다는 취지의 방문이었다. 특히 경남여고 합창단 김지현 단장과 김경숙 사무국장 등 여러 명이 찾아와 ‘우정의 관람’을 했다.

이날 연주회에는 박 총동창회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박종기 28회 동기회장, 김종명 동창회보 편집주간, 안청홍(이상 29회) 등대회 회장, 김태호(38회) 동문,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최영준(41회) 경미회 수석부회장 등 다수의 동문이 참석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박종기 동문 금일봉 전달.

◇정기연주회 출연 단원=*지휘 조성빈(47) *반주 박소미 *테너1-최상규 김형수(이상 31회) 박근태 안승진(이상 39회) 김황 최현(이상 44회) 노재훈 박병규(이상 50회) *테너2-안창범(18회) 김원철(38회) 안병규 문형준 탁정환 최현덕(이상 44회) 조용수(52회) 김현윤(58회) *베이스1-손수범(35회) 김병기 노성수 백기현(이상 39회) 박형규(43회) *베이스2-전상건(35회) 심재민(38회) 이상학(39회) 주형기(45회) 김석훈(50회) 이시원(51회).



용마코러스 정기연주회가 열리기 직전 단원들과 총동창회 집행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요 동호회·직능단체

“그냥 같 순 없어” 야구대제전 ‘활짝’

덕형리그, 코로나19 상황서 ‘유종의 미’ 거둬
내년 모교 운동장에서 모두 다시 만날 날 기약

“아쉬운 한 해였지만, 마지막 이벤트 너무 멋졌다.”

지난 10월 24일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 공원야구장에서 열린 덕형리그야구대제전에 대한 한 참가자의 평이다. 이날 야구대제전 행사는 코로나19사태로 경기를 못해 ‘야구갈증’에 허덕이던 ‘마니아’ 회원들의 갑갑한 속을 확 뚫어 주었다. 덕형리그는 올해 연초 개막하자마자 코로나19사태로 중단되었다. 덕형리그 집행부는 지난 7월 25일 제1회 덕형리그회장배 당구대회를 열어 회원들의 운동에너지와 열정을 삭히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냥 같 수 없다. 그라운드에서 다시 글로브를 끼고 공을 던지고, 배트로 공을 치고, 뛰어보고 해를 넘기자”는 마음들이 모아졌다. ‘꿈의 구장 종일 야구’는 이렇게 실현됐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4경기가 치러졌다. 첫 경기를 마치고 열린 개막식에서 이문열

덕형리그 회장은 “올해 덕형리그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매우 가슴이 아프다. 회원들의 야구사랑과 열정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이 같은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 오늘 하루 마음껏 야구를 즐기고, 야구감각을 잘 살려 내년 시즌을 기약하자”고 말했다.

이날 첫 경기는 (47+52)회 연합팀 : (51+53)회 연합팀, 두 번째 경기는 (38+41)회 연합팀 : 40회 A+B 연합팀, 세 번째 경기는 29회+구형 연합팀 : (33+36+37+54)회 연합팀이 각각 자웅을 겨뤘다. 네 번째 경기는 청년부 : 장년부 올스타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4경기 모두 승패보다는 ‘웃고 즐기는 야구’의 연출이었다.

이날 드림볼파크 공원야구장에서 경기를 치러본 선수들은 모교 경남고 운동장의 진가를 확연히

느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곳을 ‘꿈의 야구장’이라고 하지만 공간이 확 트여 있어 뜬 공 잡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모교 운동장은 숲이 둘러싸고 있어 뜬 공 식별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이날 공식적인 올해 덕형리그 경기를 성황리에 마무리한 회원들은 2부 뒤풀이 행사장인 덕계 무지개폭포 아래 위치한 금천중식당으로 이동했다. 오전 경기를 치른 일부는 귀가하고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박종찬 총동창회장, 옥동훈(이상 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도 참석했다.

이 덕형리그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게임이라도 전체가 모여 치른 뜻깊은 행사였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덕형리그가 총동창회의 한 핵이란 자부심을 갖고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하자. 내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다시 모교 운동장에서 만나게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덕형리그의 오늘 대제전은 역사를 이어가는 일이다. 전통은 매년 씬 없이 지속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덕형리그는 총동창회 산하 단체 중 규모가 제일 크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고 싶어 찾아왔다”고 밝혔다. 임기 만료를 앞둔 박 총동창회장은 “차기 총동창회장에게도 자발적이며 적극적 도움을 요청한다. 좋은 전통은 이어가야 하고 그 중심에 덕형리그가 있다”고 말하고 총동창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덕형리그는 이날 경기에서 우수한 청년부에 시상금을 수여했다. 총동창회는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69회 동문 3명이 참석, 덕형리그의 미래를 밝게 했다. 약 2시간 진행된 뒤풀이 행사는 그동안 소원했던 선후배간의 정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덕형리그야구대제전 경기 모습.



덕형리그야구대제전 행사 뒤풀이 참가자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뉴노멀의 시대 변화에 따라가야”

부울경용마언론인클럽, 10개월 만에 정기모임

부울경 용마언론인클럽 정기모임이 지난 10월 27일(화) 오후 총동창회관 내 우미옥식당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송년회 이후 10개월 만의 첫 공식모임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수인원이 참석, 속박한 분위기에서 회포를 풀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언론인의 자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선(34회) 용마언론인클럽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가 ‘뉴노멀(New normal)·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 시대’를 가져왔다. 젊은 세대는 쉽게 적응해 가고 있지만, 나이든 세대는 힘들다. 언론인 동문들도 나이가 많아졌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고 곳곳하게 전터나갈 것을 당부했다. 조 회장은 연

말 송년회가 개최될 수 있길 기원하면서 보다 훌륭한 행사가 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임기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 차기 회장의 원만한 취임을 위한 인수인계 작업을 준비 중이다. 특히 8월 말부터 매주 일요일 시행 중인 ‘위스키모임’은 술을 핑계로 박성철(29회) 차기 회장과 김대욱(29회) 차차기 회장이 후배들과 교류하도록 펼쳐 놓은 장이다. 총동창회의 자산이라 할 40대 기수 이후 정미회 회원들 격려의 의미도 있다”면서 동창회에 대한 경영적 접근을 전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각자의 근황을 소개하고 소회를 피력했다.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은 그동안 모임이 열리지 못한 것을 의식, “다시 뭉치자”고 역설



용마언론인클럽은 지난 10월 27일 총동창회관 우미옥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했다.

모교80년사 편집위원인 김기열(23회) 동문은 “최근 자료 수집차 90대 안팎의 선배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너무 자랑스러워 보였다. 나도 저렇게 늙어 야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성공적인 80년사 편찬을 위해 언론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만수(28회) 동문은 “세상이 바뀌었다. 삼성의 ‘이건희 시대’가 역사 속으로 가고 ‘이재용 시대’ 열리는 이치와 같다”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용마 언론인들은 ‘참언론인’으로서

세상의 변화를 주시하자”고 강조했다.

김재철(30회) 동문은 가수 나훈아의 ‘테스형’ 노랫말 일부를 읊으며, 세상이 힘들수록 용마언론인클럽 회원들은 더욱 오래도록 만나 정을 나누자고 말했다.

이밖에도 회원들의 노령화와 건강문제, 언론계 후배 유입 부재 현상 등이 거론됐다.

◇참석자=박종찬(25회) 남진현(19회) 김기열(23회) 이만수(28회) 김종명(29회) 김재철 정해석(이상 30회) 이석희(33회) 조선(34회) 박철중 정윤희(이상 36회) 고달우(47회).

포스트 코로나19시대 위한 변화 모색

경미회 정기모임, 분과위원회 회원 재배치 계획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가 지난 10월 14일(수) 오후 영도 '쉐프의 부대찌개'(정신 47회 동문 운영)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닷새 전 제1회 경미회 친선야구대회를 치러 연속 행사가 부담이 됐지만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 단결력과 패기를 과시했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올해 말로 완료되고, 2년의 연륜이 쌓인 경미회는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계획 중이다. 경미회 내 4개 분과위원회 구성원 재배치 작업이 당면 과제로 부각됐다. 그동안 분과위원회 단위 노력에서 거둔 활성화 성

과를 경미회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또 공유할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은 “분과위원회 활성화가 목표점이 아니라 경미회의 발전과 활성화가 지향점이 돼야 한다.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회원간 정이 들었겠지만, 대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새 분과위원회에서 새로운 우정을 쌓으면 회원 전체적으로는 더욱 우정이 돈독해지는 모습이 된다”면서 경미회가 최고의 모임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격려사에서 “자주 본다. 그만큼 애착이 강하

다”면서 “경미회의 가치는 매우 크다. 모교 80년사 편찬사업을 비롯한 총동창회의 과업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경미회가 향후 총동창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배출하는 소위 ‘사관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 각자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 있게 동창회를 리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준(41회) 차기 경미회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잘 준비하자”면서 “경미회에 오면 ‘즐겁다’ ‘오고 싶다’고 느끼도록 만들 생각이다. 선후배간 소통이 중요하다. 한 발 앞서 움직이겠다”며 경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이날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



경미회 정기모임이 지난 10월 14일 영도 쉐프의 부대찌개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미회 친선야구대회가 지난 10월 9일 웅동 BPA야구장에서 개최됐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자긍심 배가한 경미회 친선야구대회

청백전 명승부 “우리는 하나”...우정의 뒤편이 즐겨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가 가을 이벤트로 친선야구대회를 지난 10월 9일 오후 웅동 BPA야구장(창원시 진해구)에서 개최했다. 이날 제1회 경미회 친선야구대회는 홀수 기수와 짝수 기수 대표 선수들이 출전, 자웅을 겨뤘다. 하지만 승부 자체는 별 의미가 없었다. 모두가 하나가 된 즐거운 축제였기 때문이다.

경미회 친선야구대회는 덕형리그를 개막하자마자 도중하차시키고 기별야구대회를 무산케 한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출한 행사였다. 야구 경기 그 자체가 삶의 한 가지 ‘낙(樂)’으로 체득화된 용마들에게 한여름 시원한 소낙비 같은 대회였다. 행사에 쏟아진 찬조가 이날 대회에 대한 호응과 기대가 대단했음을 증명했다.

야구대회를 마치고 장소를 사상으로 옮겨 진행된 뒤편이 행사는 못말리는 열정의 경미회를 입증했다. 뒤편이 1차 오리요리(조중완 54회 동문 경영 ‘도널드 닭’), 2차 호프집, 3차 돼지국밥이 메뉴였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경미회 구호가 적용된 사례(?)이다.

이날 야구대회 격려자 폐막식과 뒤편이 행사를 찾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경미회가 총동창회의 주력으로 부상했다. 회장 임기를 마치고 고문이

되었어도 경미회를 돕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내년에 전개될 이태석신부 추모공원 조성 및 덕형관 역사관 조성 사업에 경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적 건승을 기원했다.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박 총동창회장의 참가와 그동안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31명이 참가하여 1점차 명승부를 펼친 경기였다”면서 “경남중고는 하나”라는 건배사를 날렸다.

이날 대회 출전팀 감독을 맡았던 정신(47회) 동문은 “오늘 경기 정말 재미있었다. 지속되도록 하자”고 말하고 자신의 ‘롤모델’인 박 총동창회장의 건강을 기원했다. 또 김현진(52회) 감독은 “함께 땀 흘려 너무 좋았다”고 말한 뒤 “박 총동창회장을 경미회 고문으로 위촉하자”고 긴급발의를 내놓았다. 이 안은 즉각 만장일치의 박수로 가결됐고, 박 총동창회장의 현장 수락이 있었다.

안병규(44회) 경미회 부회장은 “박 총동창회장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면서 “경남중고인은 정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 뒤편이 식당 사장인 조 동문은 54회 홈커밍데이 일정을 소개한 뒤 “‘도널드 닭’ 100호점까지 내도록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미회, 하나 되는 우정의 샷

첫 골프대회, 6개조 24명 참가 성황

경남중고미래발전협의회(경미회) 골프대회가 지난 11월 10일 낮 해운대비치 골프앤리조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경미회 창립 이후 처음 열린 골프대회에 6개조 24명의 골퍼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정의 샷을 날리며 화합과 단결을 공고히 했다(사진 왼쪽).

대회 시상식을 겸한 뒤편이행사는 해운대 마린시티 소재 대남고기식당(47회 정운호 동문 운영)에서 열렸다(사진 오른쪽). 이 자리서 우영환(40회) 경미회 회장은 “지난달 야구대회에 이어 골프대회를 잘 마쳤다. 대단하다는 느낌이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더욱 발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격려자 방문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골프를 통해서도 경미회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 동문회가 경미회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회장직을 떠나더라도 시간이 되면 모임에 찾아오겠다”고 밝혔다. 박 총동창회장은 개인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 자리서 경미회는 박 총동

창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시상 내역 및 상품=△메달리스트-안병규(44회) 벤츠 골프백 △우승-김민철(52회) 타이틀리스트 볼 1박스 △준우승-김백권(46회) 타이틀리스트 볼 1박스 △통기리스트-우재준(53회) 타이틀리스트 볼세트 △니어리스트-박형규(43회) 타이틀리스트 볼세트 △행운상-김지운(52회) 타이틀리스트 볼세트 △다파상-박성영(53회) 타이틀리스트 볼세트 △다보기상-정준섭(54회) 타이틀리스트 볼세트 △추첨-권우일(45회) 김상수(45회) 한중현(52회) 임길환(54회) 이가한우 5만원 식사권.

◇찬조 내역(기수·직책 생략)=우영환 100만원, 배병훈 20만원, 임태영 20만원, 한수열 20만원, 최영준 30만원, 전삼록 10만원, 신봉준 10만원, 안병규 10만원, 정신 30만원, 정용중 이가한우 5만원 식사권 4장, 김상수 타이틀리스트 PRO V1X 볼세트 5박스, 신정일 벤츠 골프백, 경미회 운영진 100만원, 박종찬 30만원.



이날 박 총동창회장은 5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행사 찬조 내역=우영환 100만원, 박훈재·배병훈·임태영(이상 40회) 각 20만원, 최영준(41회) 30만원, 손창오

(45회) 10만원, 정신(47회) 20만원, 김현진(52회) 10만원, 권우일(45회) 플래카드, 김영철(41회) 2차호프집 40만원 결재, 안병규(44회) 3차 국밥집 23만원 결재.

모교 재학생, 총동창회관 단체 방문

경남고 1·2학년, 자긍심 더 공고해져

모교 재학생 후배들의 공식적인 총동창회관 단체방문이 지난 11월 3일 진행됐다. 경남중고 야구부 선수단 방문은 이전에 있었지만, 학교 차원의 단체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날 오전 경남고 2학년 30명과 1학년 8개 학급 150여명이 각각 내방했다.

오전 10시 총동창회관에 도착한 2학년은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각 층을 둘러보았다. 6층 강당에서 박 총동창회장으로부터 '5분 특강'을 들었다. 박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학창시절 최선을 다해 학업에 증진하라"고 말하고,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 우정의 깊이를 더 돈독히 하라 △좋아하는 분야에 집중하라는 2가지 교훈을 들려주었다. 덧붙여서 동문회와 계속 연결할 것을 주문했다.

10시 30분에 총동창회관에 집결한

1학년생들은 2개반씩 4개조로 나눠 회관을 둘러봤다. 박 총동창회장과 남진현(19회) 총동창회관장, 옥동훈(25회) 사무총장, 김종명(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이 안내와 설명을 맡았다.

방문 재학생들은 회관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다. 총동창회서 이들에게 머그컵·캘린더 등 기념선물을 전달했다.



총동창회관을 방문한 경남고 재학생 인솔 교사들.

경남고 1학년 전체 학생들이 총동창회관을 방문했다.



경남고 2학년생들이 박종찬 총동창회장의 '5분특강'을 듣고 있다.



경남고 1학년생들이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남진현 동창회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경남고 1학년생들이 미니역사관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고 2학년생들이 총동창회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고 1학년생들이 총동창회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동문 13명, 후배 재학생 멘토 되다

경남고 '동문 선배 멘토링 심화진로활동' 참가

"후배들의 진로 지도를 위해 기꺼이 멘토가 되어 주겠다."

사회 각계에서 내로라하는 동문 13명이 모교 경남고에서 진행되는 '동문 선배 멘토링 심화진로활동'에 참가했다. 기존의 선배 초청강연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최가 어려워지자 이를 대체한 것이다. 재학생과 선배 간 1대1의 결연으로 내용면에서는 재학생들의 진

로실현에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대학입시 전형(학생부종합 전형)에 필요한 유익한 자료까지 확보하는 셈이라 이번 기획이 소중한 기회라는 분석이다.

'멘티'가 될 결연 희망 재학생 15명은 모두 2학년으로 꿈 발표 한마당 참가자, 소감문 작성 우수자 중 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됐다. 특히 미래 희망직

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학생으로 제한했다. 멘티는 활동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보고서를 취합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등재할 계획이다.

멘티들의 희망직업은 언론인(기자, 아나운서), 회계사, 제약사, 경영컨설턴트, 전자공학 기술자, 가수&엔터CEO, 항공정비사, 광고디자이너, 퍼블리셔(컴퓨터프로그래머), 서버 관리자 및 해커(컴퓨터프로그래머), 건축가, 의료로봇 개발자, 항공관련 사무직, 교사 등 다양했으며 구체적이었다. 특히 이들은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오

고 있는 등 꿈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간 미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

멘토 동문은 이광태(26회·경남대 교수), 백영호(28회·큰보람약국 대표), 김현태(30회·㈜상명무연엔지니어링), 이창(36회·㈜MDIS 대표), 정윤희(36회·울산교통방송 편성제작국장), 김태성(38회·동인고 교사), 박근태(39회·부산대 교수), 엄일규(39회·부산대 교수), 권우일(45회·대경커뮤니케이션 대표), 김백권(46회·프로에스콤 대표), 최원석(46회·회계법인 지평), 고달우(47회·부산일보), 최진영(49회·신우회계법인) 동문이다.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에서 우승한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과 응원 온 동문 선배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경남고, 내년시즌 향한 ‘대망’ 꿈꾸다

명문고야구열전서 ‘난적’ 강릉·덕수고 꺾고 패권

‘야구명문’ 입증에 동문 환호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 했던가. 모교 경남고가 고교야구 ‘왕중왕’에 등극했다. 2020년 시즌을 마감하는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파이낸셜뉴스·부산파이낸셜뉴스 공동주최)에서 경남고는 올해 대통령기 우승팀 강릉고와 협회장기 우승팀 덕수고 등 주요 대회 우승

자들을 차례로 물리치고 패권을 차지, 명실상부한 고교야구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야구명문’이란 이름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경남고는 2021년 시즌을 향한 ‘대망’을 꿈꾸게 됐다.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기장군 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경남고는 대구고, 경기고를 파죽지세로 제압하고 준결승전에서 강

릉고를 9:3으로, 결승전에서 전년도 이 대회 우승팀 덕수고를 12:5로 물리쳤다. 최근 수년 동안 전국고교야구대회 무관(無冠)의 불명예에도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와 땀으로 용마의 정기(精氣)를 모은 노력의 결실이 꽃을 피웠다. 경남고는 2016년과 2018년에 이어 세 차례 이 대회 패자로 우뚝 섰다.

이번 대회에서 경남고 리드오프 허성철 선수는 최우수선수상, 어용 선수는 최우수투수에게 주는 ‘최동원선수상’, 전광렬 감독은 감독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 투수상을 거머쥐고 고교야구 ‘대어’로 부상한 어용은 키 187cm에 몸무게 103kg의 당당한 체구를 자랑하며 평소 143km/h의 직구를 던진다. 어용은 올 겨울과 내년 봄 훈련에서 직구 스피드를 140대 중후반까지 끌어올리고 변화구 제구를 찾아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이 우승의 기쁨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대회 결승전 하이라이트는 4, 5회였다. 경남고는 1회초 2점을 선취하고 1회말 3점을 내줬다. 2회말 다시 1점을 내줘 2:4로 밀리다 4회초 승기를 잡았다. 경남고는 4회, 5회 덕수고 투수 난조로 거푸 만든 무사만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4회 싹쓸이 2루타(이세운), 5회 역시 싹쓸이 3루타(허성철)를 작렬시켰다. 찬스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경남고는 4점을 더 보태 결국 덕수고를 12:5로 제압했다.

이날 경남고 투수 김주완은 전날 강릉고와의 준결승전에 이어 결승전까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는 기염을 토했다. 김주완은 1⅓이닝을 3피안타 1실점으로 막아 승리를 따냈다. 경남고는 필승 카드 어용을 내세워 결승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경남고, 현대차청소년야구대회 우승



경남고 야구부가 지난 11월 말 기장-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진행된 ‘2020 현대자동차 청소년야구대회’에서 고등부 우승(사진)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11개팀이 출전, 자웅을 겨뤘다. 지난 11월 초에 열렸던 명문고야구열전에서 우승한데 이어 또 한 번의 우승낭보였다.

‘야구명문’ 명예 지킨 선수단에 격려 만찬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경남고 야구부 초청 축하연 개최

박 총동창회장 사비 쾌척

‘후배 선수들의 땀과 투혼으로 빛은 우승에 동문 선배들은 더 없이 기뻐했다.’ 지난 11월 16일 오후 영주동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경남고, 제7회 전국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축하연’의 분위기를 압축한 문장이다. 전국대회 ‘우승가뭇’에 시원한 소나기 같은 낭보였다. 비록 전국대회급 경기는 아니지만, 경남고는 각종 전국대회 우승팀들을 포함한 강호끼리의 대결에서 패권을 차지, ‘야구명가’의 명예와 전통을 지켰다.

이날 축하연에는 경남고에서 1, 2학년 야구선수단과 전광렬(44회) 감독 등 코칭스텝과 정대호 교장, 조민형 교감 등이 참석했고, 결승전에 응원 온 동문 등 모두 65명이 초대되었다.

이날 축하연 자리를 개인 사비로 마련한 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축소판 전국대회에서 거둔 값진 우승이었다. 야구로 단합되는 모교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졌다. 1, 2학년 주축으로 우승해 내년시즌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자리 식사대접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경남고 정 교장은 “올해 전국대회 우승팀인 강릉고와 덕수고를 꺾고 우승해 더욱 값지다.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선수들에게 ‘내년 전국대회 우승하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참석자 중 최고참인 배대결(13회) 동문은 “어린 후배들이 쾌거를 거둬 너무 기분이 좋았고 고맙다. 내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진현(19회) 동창회관장은 “전국대



경남고 야구부 명문고 야구열전 우승 축하연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가졌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회 우승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전광렬 감독 이하 코칭스텝 고생했다. 많은 분이 응원 와서 12:5로 이겨 즐겁고 행복했다”고 말했다.

김부겸(29회) 부산시 야구소프트볼 협회장은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해 기분 좋았다. 내년을 전망하는 큰 시합이었다. 협회에서 물심양면 돕겠다”고 말했다.

경남고 전 감독은 “전국적 메이저 대회는 아닌데 큰 의미를 줘서 송구하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 자리서 격려금 100만 원을 경남고 야구부에 전달했다. 박 총동창회장은 개인 사비로 전 감독에게 부인에 전하라며 선물(상품권 50만원)을 선사했다.

◇동문 참가자(직책 생략)=배대결(13회) 남진현(19회) 김인구(24회) 박종찬 옥동훈(25회) 김부겸 김종명 현영렬(이상 29회) 장정석(33회) 정운성(35회) 김종오 박철중(36회) 김태호(38회) 박근태 윤원욱(39회) 우영환(40회) 박형규(43회) 안병규 임정훈 탁정환(이상 44회) 권우일 손창오(이상 45회) 정신(47회) 김동주(51회) 송승준(53회).

경남고, 카톨릭 환경상(우수상) 수상

경남고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지도교사 조영택)가 지난 10월 20일(화) 오후 3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거행된 제15회 가톨릭 환경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의식을 쌓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펼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동아리는 선배인 이태석(35회) 신부의 참사랑을 본받아 지역사회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하여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자라는 취지로 2017년 조직되었다.

우유곽 모아 화장지로 교환한 뒤 생필품과 함께 독거노인 돕는 봉사활동, 폐약품 모아 보건소에 제출하기, 과제연구 및 사회문제탐구 수업(자원순환, 환

경오염, 지구온난화 주제 탐구보고서 쓰기), 투표 쓰레기통을 활용한 분리수거(교내), EM 발효 효소 제조·판매대금 독거노인들께 기부하기, 온라인 용마인문학당 2회 실시(주제: 1차 '코로나19', 2차 '자연재해 및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은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며 큰 기쁨과 감동을 체험하고 있다.



제15회 가톨릭 환경상 시상식 모습. 경남고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 지도교사인 조영택(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교사가 참석했다.



'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동아리'가 설치한 투표 쓰레기통을 활용한 분리수거(교내) 모습.

‘지구환경 지키기와 재난예방 NIE 패스포트’ 김준서(2학년) 학생 대상… 단체상도 수상

경남고 김준서 군(2학년)이 지난 10월 30일 한국신문협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구환경 지키기와 재난예방 NIE 패스포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지도교사 조영택). 심사위원회는 김 군의 작품에 대해 “모든 주제를 알차게 정리했고 창의적 확정성이 돋보였

다”고 밝혔다.

또 경남고는 단체상도 차지, 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하진현(2학년) 군이 개인부문 장려상(상금 5만원)을 수상하는 등 참가학생 17명 모두의 응모 작품이 고루 우수하고 완성도는 물론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남고 낙서반, 독서토론리그 우수동아리 선정

경남고 토론동아리인 낙서반(지도교사 박소영)이 2020부산광역시교육청 다같이 독서토론리그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었다. 지난 11월 14일 동서대 소향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

사에서 탁월한 독서 토론 능력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 지정도서는 김지혜 저 ‘선량한 차별주의자’(2020 원북원부산 올해의 도서)였다.

엄종원(16회) 동문, 경남고에 장학금 기탁



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 장학금을

엄종원(16회·사진) 동문이 지난 11월 18일 경남고를 방문,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 엄 동문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

지급하길 바란다.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 더욱 열심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엄 동문은 앞으로 3천만원의 장학금을 추가 기탁할 것도 약속했다. 학교에서는 12월에 기탁금 600만원으로 학년별 4명씩 총 12명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을 에워싼 경남중 학생들.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 경남중서 인기 “선배님이 학생들에게 꿈 키워줘”

지난 8월 15일 경남중 교정에서 제막식을 가졌던 김영삼 전 대통령 흉상이 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막식 이후 학생들은 삼삼오오 등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체육시간 등에 흉상을 찾아와 스킨십을 하며 인증샷을

찍고 있다.

김미정 경남중 교장은 “대통령 선배님이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제막식 날 발표했던 자작 ‘김영삼 대통령 3행시’를 동문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보내왔다.

〈김영삼 대통령 3행시〉(김미정 작)

김 : 김영삼 대통령 흉상! 드디어 경남중에 세워졌네.

영 : 영광과 감동의 자리! 후배사랑 모교사랑 더욱 빛나네.

삼 : 3회 졸업생, 대통령이 배출된 경남중! 글로벌리더양성, 배움의 전당이 되리!

경남중, 자유학년제 우수학교 표창

경남중은 최근 자유학년제 우수사례 학교로 선정돼 부산시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미술, 음악,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역사, 사회 등 각 교과별 창의프로젝트 활동을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펼쳐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능력이 신장되

었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및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남중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소집단별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 호응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외부 진로현장 체험이 어려워 교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세울 기회를 갖게 했다.



경남중 기타보컬반 학생들이 연주하고 있다.

e-스포츠 리그 개최 경남중 학생자치회

경남중 학생자치회는 2학기 시작 이후 ‘용마 e-스포츠 리그’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각종 스포츠 활동이 지장을 받게 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올바른 게임 문화를 조성하며 건강하고 매너 있는 공감의 장을 만들었다.

경남중 이규민 교감 부임



경남중에 이규민(사진) 교감이 지난 9월 1일자로 부임했다. 이 교감은 부산대 국어교육학과를 나와 부산고, 경남여고, 장안고, 남일고 등 7개교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17회 산악회 = 장산 산행



지난 11월 15일(일) 해운대팀에 합류, 장산 산행을 다녀왔다. 벅스코역 4번 출구에 7명이 모여 유격훈련장 코스를 피하고 중봉 안부까지 올랐다. 이진우 동기가 준비한 떡과 계란으로 요기했다. 많은 등산객 중 포레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장산마을 백운산방에서 모처럼 국수로 점심을 해결했다. 하산 후 생맥주 한 잔을 걸치고 산행을 마무리 했다.

참석자 : 김길호 박신도 박인사 박청홍 오태식 이진우 하영수

17회 산악회 = 6번째 번개 산행



지난 11월 1일(일) 송유근 동기의 진례 감 농장에 감을 따러갔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9시반 차로 8명이 출발, 40여분 달려 진례에 도착했다. 평지마을 진례저수지를 올랐다. 진례 토성지를 지나는데 가랑비가 내렸다. 진례저수지의 축축한 가을의 정경을 즐기고 이른 점심을 먹었다. 닭과 오리 백숙 안주로 술추렴을 즐겼다. 송유근 동기가 미리 준비해둔 감을 배낭에 가득 넣고 귀갓길에 올랐다.

참석자 : 박신도 박인사 박청홍 송유근 신정아 오태식 이진우 하영수

18회 해운대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11월 19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18회 해운대동기회 모임을 가졌다.

천두갑 회장 겸 사무국장, 김길제 고문, 김사권



경우회장 외 전체 26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9회 재경산악회 = 아차산 산행



지난 11월 22일(일) 7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아차산 산행을 다녀왔다.

중곡동 긴고랑공원~용마-아차산 안부~아차산 제4보루~아차산 정상~아차산 해맞이공원~광나루역 동태탕식당까지 코스였다. 산행거리는 약 4.8 km, 산행시간은 2시간 10분정도 걸렸다.

20회 동기회 = 월례회



지난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 더파티 서면점 비너스룸에서 22명의 동기생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반기 월례회를 가졌다.

참석자 : 강석근 강영환 김두영 김세준 류영덕 박기상 박병관 박병천 박재인 신현석 오경석 우철성 윤병규 이종열 임지성 장병호 정승창 최장하 탁성식 표문량 표문배 허규판

21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11월 8일(일) 9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동백역~송정 구간(새로 단장된 철로길 산책)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해운대 좌동시장 진주횃집에서 대방어회를 비롯한 푸짐한 뒤풀이를 하였다.

참석자 : 김성환 김현기 송원정 오익희 이재화 정길영 조현영 최금구 최수명내외

24회 동기회 = 10월 정기모임



지난 10월 23일(금) 오후 6시 22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삼송초밥에서 10월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서 졸업 50주년 기념 모교발전기금 전달 관련 보고가 있었다. 고문단회의를 소집해 현안 협의 및 내년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인구 김장현 노상우 배재일 안명수 안상수 이상룡 임민호 장민재 장수현 장한중 장현동 주점권 최우림 최창림 태창업 황성훈

24회 산우애 = 정기산행



<기사 28면에 넘김>

‘1942KN’ 식당·카페 재개업 성황

상호 ‘우미옥’ ‘Meer’로 개명…고객 붐벼

경남중고 총동창회관이 지역의 ‘맛집’ 소재지로 부상 중이다. 지난 11월 5일 정식 개업한 총동창회관 1층 식당 ‘우미옥’이 동문을 비롯한 거쳐 간 고객들 사이에서 “맛 있다” “다르다” “괜찮다”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입소문이 나자 동문뿐만 아니라 일반고객들의 방문도 늘어나고 있다.

우미옥은 박이현(38회) 동문의 부인 정정아 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박 동문이 팔을 걷어붙이고 거들고 있다. 우미옥은 돼지국밥,

돼지수육백반, 육회비빔밥에다 역점 포인트로 개발한 육개장까지 메뉴를 확대, 고객들의 기호와 입맛에 부응하고 있다. 박 동문은 “손님들 입맛에 맞추고 음식 질을 높이려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연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페 ‘Meer’는 독일어로 ‘바다’란 뜻이다. 카페 역시 식당 고객의 증가에 따라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페만을 찾는 일반인 고객들도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총동창회관 1층 우미옥 식당이 고객으로 붐비고 있다.<사진=윤원옥(39회) 영상편집위원>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7면에서 받음〉

지난 11월 7일(토) 오전 10시 중동역~달맞이고개~문텐로드~청사포 다릿돌전망대~해운대 해수욕장~동백꽃피는집 구간으로 11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2020년도 6번째 산행이었다. 점심식사 후 장현동 동기의 찬조로 차와 단팔죽을 먹고 헤어졌다.

참석자 : 곽두희 김영식 김인구 김인철 안형수 장수현 장현동 태창업

24회 산우애 = 영남알프스 산행



지난 10월 하순~11월 초순 4회에 걸쳐 영남알프스 9봉을 답파하였다. 모두 해발 1천m 이상으로 일정은 10월 22일(천황산, 재약산), 29일(고현산, 문복산), 11월 3일(가지산, 운문산), 11월 5일(간월산, 신불산, 영축산)이었다. 산행거리는 총 70여km이다. 향후 영남알프스 여타 봉우리와 계곡 등을 집중 탐구할 계획이다.

참석자 : 안형수 조재진 최원주

24회 이사빌 = 월례회



지난 11월 8일(일) 오후 2시 중앙동 플라틴당구카페와 오봉식당에서 11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우승 김경남, 준우승 김장현 동기 차지.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참석인원이 10명 이하일 때는 플라틴, 10명 이상일 때는 KN당구장에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일) 오후 2시 중앙동 플라틴당구카페와 성문식당에서 10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우승 노상우, 준우승 김경남 동기.

참석자 : (11월)곽두희 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장현 노상우 이재능 임덕철 장현동 주점권 최우림 태창업 황성훈 (10월)김경남 김명배 김성권 김인구 노상우 임덕철 장현동 최우림 최창림 태창업 황성훈

24회 후라회 = 월례회

지난 11월 4일(수) 오후 6시30분 자갈치 성문식당에서 11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장민재 회장의 인사에 이어 태창업 총무의 경과보고 및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다. 박홍규 동기가 오륙도~통일전망대간 해파랑길(770km) 완보 기념 캘린더를 제작, 선물했다.

참석자 : 강동우 강종문 김경남 김도현 김명배 김인구 김인철 노상우 박홍규 임민호 장민재 장현동 최동우 최우림 태창업 황성훈



24회 남해수 = 월례회



지난 11월 20일(금) 오후 5시 해운대 민들레밥상에서 11월 월례모임을 가졌다. 차기 2021년도 남해수 회장에 장현동 동기를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차동렬 회장이 디지털 역량 강화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리모트 미팅 앱을 이용한 시범강의를 하였다.

참석자 : 김인구 배종갑 장현동 정영환 차동렬

25회 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11월 8일(일)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배내고개~배내봉~간월산~간월재~등억온천지구 구간으로 11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지난 10월 11일(일)에는 12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10월 정기산행을 용호동 이기대~장자산 구간으로 다녀왔다.

참석자 : (11월)김구화 김태선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옥동훈 이창훈 이태근 최동하 탁준길 황곤태 (10월)김용수 김태선 박광용 박문갑 박종찬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태근 탁준길 하동문 황곤태

26회 동기회 = 2차 에코투어



지난 10월 31일(토) 송도 암남공원에서 24명의 동기가 가족이 코로나19를 넘어 2차 에코투어에 참석,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권해국 김상현 김섭권 김영훈 김택영 박민

식 신형진 왕정일 윤홍석 이경호 이광태 이상원 이영학 정철주 최수일내외 최윤림 최의수 하길태내외 하원규 황광수 허종내외

26회 동기회 = 월례회



지난 11월 15일(일) 2020년 동기회 마지막 행사인 '26악'과의 동반산행을 이기대 공원 둘레길로 다녀왔다. 중식대는 박상호 동기가, 팔빙수와 단팔죽은 하성봉 동기가, 마지막으로 도미회는 김영훈 동기가 협찬.

참석자 : 강수남 강영녕 권해국 김상현 김영훈 김정곤 박용석 박권병 박상호 성백운 왕정일 유봉식 이경호 이광태 이영덕 장경재 정철주 최윤림 최의수 하성봉 허종내외 허진호

27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11월 5일(목) 서면 다원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9개월 만에 만난 동기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병호 회장의 '술은 조금만, 운동은 열심히, 건강 잘 유지' 요지의 인사말과 건배사가 있었다. 태기섭 동기는 770km 해파랑길 완보 기념으로 제작한 2021년 달력 30부를 기증하였다.

참석자 : 강봉호 김병호 김상문 김석은 김용섭 김재섭 박철기 박현호 방문성 배병호 백민호 변재국 신한원 윤석건 윤일근 윤지한 이상열 이종찬 조태화 태기섭 허한

27산우회 = 정기산행



지난 11월 8일(일) 초읍 어린이 대공원~만덕고개~남문~온천장 구간으로 1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11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 강봉호 김재섭 박현호 방문성 변재국 윤석건 윤지한 이종찬 장기남 홍종만

〈기사 29면에 넘김〉

<기사 28면에서 받음>

28기우회 = 제1회 경부교류회



본부동기회의 28기우회(회장 김부운)와 재경28기우회는 지난 10월 18일 서면 부전기원에서 첫 바둑교류회를 가졌다. 각 팀 9명씩 18명의 기사가 출전해 3차례 치열한 대국 결과, 두 팀이 절묘하게도 통산 13전 1무 6패 동률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진풍경을 보였다. 당일 MVP는 3승을 기록한 옥준원 재경동기가 차지. 28회 본부동기회(회장 박종기)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내년에는 서울서 교류회를 갖는다.

참석자 : 김경준 김부운 회장(4급) 김정유(4급) 박래섭(1급) 박종기 소유남(4급) 이관선 사범(1급) 이만수(4급) 이승준 총무(3급) 이원표(1급) 전학명(4급) 최태열(2급)(본부28기우회) 김용섭(1급) 김태영(3급) 옥준원(1급) 이승열(5급) 이호선(1급) 전상원(3급) 전재만(4급) 허남진(4급) 허진호(3급)(재경28기우회) 대한바둑연맹 김향희 부회장(5단) 부전기원 김종란 대표(3급)

28산우회 = 경부합동산행



금년도 경부합동산행을 11월 14일(토) 영남알프스 배내봉-간월산 역새길 8km에서 펼쳤다. 산꾼 34명 참석. 버스로 새벽에 출발해 온 재경28산우회(회장 노문호) 동기들과 본부28산우회(회장 최연욱) 동기들은 함께 장관의 역새발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끼며 두터운 우정을 다시 확인했다. 28회 본부동기회(회장 박종기)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서울 친구들에게 맛있는 언양불고기를 대접했다.

참석자 : 김경준 김대성 산행대장 김부운(+1) 김이청 김정유 김태완 박재훈 박종기(+1) 옥상곤 이원철 최연욱 회장(본부28산우회) 공도성 김재주 김중섭 김종인 김태영 김홍식 노문호 회장 석안식 송승기 산행대장 이대권(+1) 이승보 이승열 이정철 이진희 장기남 정영주 천윤철 최봉락 최성덕(+1) 한승완 황훈성(재경28산우회)

28기우회 = 여성기우회와 교류회

본부28기우회(회장 김부운)는 11월 15일 오후 서면 부전기원에서 처음으로 부산여성기우회(회장 김종란·부전기원 원장·3급)와 바둑 교류회를 가졌다. 각 팀 7명씩 출전, 2차전에 걸친 대국 결과 여성팀이 8:5로 승리. 이날 대국은 28기우회 이관선 사범(이관선바둑교실 원장·1급)이 섭외하여 성사되었다. 김 부산여성기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우회장은 “훌륭한 매너의 28기우회와 모임을 가져 뜻 깊었다”면서 “이러한 대국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 김부운 회장(4급) 김용섭(1급) 김정유(4급) 우건식(3급) 이관선(1급) 이승준 총무(3급) 최태열(2급)

30회 마창동기회 = 가을모임



지난 9월 18일(금) 마창모임을 김해곤 동기(2반) 양산별장에서 가졌다. 참석인원이 적어 본부동기들도 참석. 근처에 거주하는 79세의 김경수 은사(2반 담임)를 초대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창시절 추억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권택술 김백수 김해곤 김현태 박규완 박철우 배성근 이원용 홍인기 김경수 은사

30회 동기회 = 3학년 7반 모임



지난 11월 13일(금) 1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3학년 7반 모임을 가졌다.

1차는 바쁜 일정으로 참석 못한 윤성덕 동기가, 2차는 이명건 회장이 찬조.

참석자 : 권용택 김경수 노치훈 박중배 서강태 옥유전 이명건 이원용 이철호 정용하

31회 동부지회 = 정기모임



지난 10월 24일 동부지역 10월 정기모임을 해운대 테베이101에서 진행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동기들이

참석, 오랫동안 만남을 갖지 못해 소원해진 관계를 돈독히 한 자리였다. 식사 후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안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 : 공종렬 김광현 김시현 김태근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박세환 배정우 신수열 심재현 안병곤 이원장 정용식 정인화 조영기 최상규 최봉근

33산우회 = 33·35회 합동 산행



지난 10월 11일(일) 33산우회는 김해 무척산으로 35회 후배들과 합동 산행을 다녀왔다.

33야구단 = 트레킹



지난 10월 25일(일) 33야구단은 코로나19로 덕형리그가 취소되어 심신을 단련하고자 6명의 동기가 모여 이기대 트레킹을 다녀왔다.

참석자 : 공진우 류홍영 박근보 박상국 백수현 장정석

33회 마창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10월 31일(토) 11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마창(마산&창원)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신입 집행부(백수현, 주기훈)가 인사차 참석하였다.

참석자 : 공진우 김계주 류홍영 백수현 신용준 윤기룡 이승상 정길섭 주기훈 최봉규 최상진

34당사모 = 정기모임



<기사 30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9면에서 받음〉

지난 10월 22일(목) 저녁 부평동 총동창회관 내 'KN당구클럽'에서 10월 모임을 가졌다. 모두 16명의 동기들이 참석,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멋진 경기를 즐겼다. 최경석 동기가 승점 9점으로 1위, 문형철 옥재명 동기가 공동 2위를 차지하며 김인철 동기가 찬조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부상으로 받았다.

참석자 : 강운모 김두섭 김인철 김중근 김현용 문치호 문형철 손병걸 옥재명 유승민 이상도 이상운 이정철 조선 최경석 황인철

35회 울산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11월 6일(금) 오후 7시 삼산해물제국에서 5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11월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 : 강창호 김인수 남권효 이효성 전상진

36회 동기회 = 당구회장배 당구대회



지난 10월 24일(토) 총동창회관 2층 KN당구클럽에서 29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당구회장배 당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는 2인1조 복식 3쿠션 시합으로 우승 김규선·이규진 동기, 준우승 맹경태·박형출 동기, 공동3위 김한교·김현철, 우한주·이재형 동기가 차지했다. 김용진 동기는 5점을 득점, 하이런상을 받았다.

유재진(22회) 동문, 부산산업대상(경영) 수상
스타자동차 회장...울산 화재 때 선행 주목 받아



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였다.

한편 유 자문위원은 지난 10월 8일 심야에 발생한 울산 삼환아르누보 건물화재 진압 과정에서 보여준

유재진(22회·스타자동차(주) 회장·사진) 총동창회 자문위원이 지난 11월 27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수여하는 올해 제38회 부산산업대상 경영부문을 수상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평가였다.

선행으로 국민적 유명인물로 부각됐다. 유 자문위원은 15시간여나 걸린 화재 진압 과정에서 출동 소방관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스타자동차 울산 대리점 전시장을 '현장 지휘본부'로 내주고 소방관들에게 식사까지 대접했다. 물론 이날 정상 영업은 포기했다. 이 미담이 전국의 마스크를 통해 알려지자 '참다운 기업가 정신'을 보여줬다는 등 찬사가 쏟아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을 맡는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일에 앞장서 온 유 자문위원은 동문회를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해오고 있다. 현재 플라티넘급(5천만원 이상) 기부자이며, 용마골프대회 홀인원상 벤츠자동차 1대 시상 보험료를 부담해오고 있는 등 모교와 동문 사랑이 각별하다.

용마골프회, 통영서 '소풍 라운딩'

용마골프회가 지난 10월 29일 모임 활성화에 의미 있는 '소풍 라운딩'을 가졌다(사진). 통영 동원로 앞CC에서 가진 소풍 테마 라운딩에 6개조 24명이 참가했다. 신청자가 몰려 양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출발에서부터 귀가까지 참가 동문들의 끊임없는 웃음소리가 이어지는 등 동문애가 만발했다.

◇라운딩 성적=△챔피언:박성영(53회) 81타 △신편리우스:배봉건(44회) △준우승:신정일(46회) △행운상:권우일(45회) △롱기트스트:정유석(51회) 270m △니어리스트:최



상배(45회) 5m.

◇찬조=박종찬(25회) 총동창회장 30만원, 김대욱(29회) 50만원, 이종휘(32회) 20만원, 한수열(40회) 10만원, 안병규(44회) 10만원, 정용중(42회) 이가한우 식사권 5만원 2장.

참석자 : 공진식 광상호 김광수 김규선 김동현 김상백 김용진 김창일 김현철 김현철 맹경태 박재영 박형출 성귀호 손진규 신승렬 양호진 우한주 이규진 이성호 이재형 이필이 이학수 전영목 전현우 정병기 정홍원 최승호 한만준

45회 동기회 = 정기모임



륙도 갈맷길로 다녀왔다.

참석자 : 김민철 김현진 김형준 박선종 조용수

55회 동기회 = 총동창회장님과의 만남



지난 11월 28일(토) 동기회 결성을 위해 3명의 동기가 박종찬 총동창회장님 댁을 방문하였다. 영광스럽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참석자 : 박종찬 전섭태(이상 25회) 김용석(28회) 김종만(33회) 김병기(39회) 이승택(47회) 이육한 장지훈 정보영 (55회)

삼사공사 = 정기모임



지난 11월 11일 용마횃집(31회 김대식 동문 운영)에서 뽀빠로데이를 맞아 정기모임을 하였다.

참석자 : 배대결 윤기갑(13회) 김화옥(14회) 김인구(24회) 김대식(31회) 김태호(38회)

동기화·동호회 및 직능단체

각종 행사 12월 후반 줄이어
‘동문과의 만남’에 강한 의지

동창회 관련 각종 행사가 12월 중반 이후 줄을 잇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것을 기대하여 늦춘 것이다. 대부분 소규모 행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사를 취소한 단체는 신년회를 계획 중이다.

충동창회 주최 용마의 밤 행사가 15일 열리며, 북부산지구동창회 16일, 해운대지구동창회 23일, 사하지구동창회 29일, 김해지역동창회 22일 각각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또 경미회 송년회가 22일, 용마언론인클럽 송년회가 29일 열린다. 등대회 모임(12월 4일 개최 예정), 창원 용마의 밤(8일), 용마산악회 납회산행(13일) 등은 취소됐다.

15일 개최하는 용마의 밤 행사도 지난 3일에서 연기된 것으로, 방역 수위가 높아지면 아마저도 불가능할 수가 있다. 충동창회는 소수 참여로 동창회관 강당 이용 등 대비책을 강구해 두고 있다.

경남중고 동문불자회(경불회·회장 정영천·21회)는 제29차 정기가족법회를 지난 11월 21일(토) 오후 연산동 법계정사(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가졌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이래 10개월 만의 법회였다. 이날 통도사 문수원의 수안 스님이 초빙되었다. 참가자들은 화엄경 현수품을 합송하며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함께 수행 탁마할 것을 권하는 청정법문을 들었다. 이 자리에 박종찬(25회) 충동창회장이 부인 문영희 여사와 함께 법회에 참석했다. 박 충동창회장은 격려금 30만원을 전했다.



◇동문 참석자(+1은 배우자 참석)=신민철 이태량 장영길(이상 13회) 정영천 김일곤(이상 21회) 이순(23회) 정영환(24회) 박종찬+1(25회) 서정환+1 최연옥(이상 28회) 배현호+1(29회) 안영훈 이석희 정영학+1(이상 33회) 윤원옥(39회) 안광근(41회) 이찬희(54회).

‘가을맞이 고등어 정찬 모임’ 연례 행사화

박극제(24회)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동문 초청 오찬

‘가을맞이 고등어 정찬(正餐) 모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렸다. 박극제(24회 명예동문)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3일 낮 12시 박종찬(25회) 충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 10여명을 부산공동어시장으로 초청, 고등어 요리 오찬을 대접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서 부산공동어시장의 흑자 전환 등 사업현황을 간략히 전하고, 고등어의 종류와 맛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



박 충동창회장은 박 대표의 초청에 감사의 인사를 하고, 부산공동어시장의 번영을 기원했다.

◇참석자=박종찬 옥동훈(이상 25회) 김종명(29회) 류명석 오민일 이병태 조성근(이상 31회) 박성철(32회) 류장근(33회) 김종오(36회) 박근테 윤원옥(이상 39회) 신현식(51회).

용마기우회, 준우승 차지

부산시바둑협회장배 동호인대회

제1회 부산광역시 바둑협회장배 동호인 바둑대회에서 용마기우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29회 동문이 주축이 된 용마기우회는 지난 11월 22일 사

직동 한국기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종합 9승6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참가 선수는 이관선(28회) 강성훈 김대욱 이영태(이상 29회) 김준영(31회) 동문이다.

송 구 영 신

경남중고 동문 여러분. 2020년 庚子年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힘겨웠지만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는 충동창회관 개관이란 역사적 과업을 해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정성과 큰 사랑이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2021년 辛丑年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남중고 충동창회 사무국 (051)253-7788

동창회보
투고환영

yongma2007@hanmail.net

충동창회 사무국 :

T. 051-253-7788

T. 010-8452-7551

롯데 송승준(53회) 투수, ‘플레이팅 코치’ 발탁

내년 시즌 현역 원만한 마무리 위한 구단 예우
롯데에서만 15년 활약 헌신... 신망 두터워



롯데자이언츠의 고참 투수 송승준(53회·사진) 동문이 내년 시즌부터 ‘플레이팅 코치’로 활약하게 됐다. 롯데 구단은 지난 11월 26일 송 동문의 발탁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헌신했던 송승준을 팀에 필요한 귀한 인재로 판단했다. 현역 생활을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예우할 방법으로 플레이팅 코치 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 동문은 지난 2007년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이후, 14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한 프랜차이즈 선수이다. 송 동문은 평소 선수단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고 코칭스태프와의 관계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동문은 “현역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좋은 제안을 해줘 감사하다. 다음 시즌까지 한 팀에서만 15년을 뛰게 됐는데, 그동안 선수 생활을 잘 해낸 것 같아 뿌듯하다. 구단 도약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독립유공자 선친에 이은 훈장, 가문의 영광” 회계사 43년 외길…기업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노력

■ **철갑산업훈장 받은 이병찬 총동창회 고문**

“어머님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이신 선친께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는데, 자식인 제가 철갑산업훈장을 받아 대를 이어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게 돼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3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회계사로서 최초로 철갑산업훈장을 받은 이병찬(23회·선일회계법인 회장) 총동창회 고문(제35대 총동창회장)의 말이다. 회계 전문가로서 43년간 외길을 걸어온 이 고문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태길 선생의 후예이다. 부산 동천고 교장을 마지막으로 광복 이후 교육계에 투신했던 선친의 훈육은 이 고문에게 삶의 지표였다. ‘정의롭게, 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다. 바로 경남중고 용마인의 정신이다.

“선친의 권유를 받아 지역과 지역의 기업을 위해 수십년 활동한 것이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 고문은 훈장 수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1977년 서울 소재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한 뒤 얼마 안 있어 ‘부산에 와서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선친의 말씀이 있었다. 이 고문은 당시 지역 사무소가 없었던 회사를 설득해 영남지역본부를 출



철갑산업훈장을 수상한 이병찬 총동창회 고문은 43년간 회계사로 한길을 걸어왔다고 말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범시키면서 본부장을 맡아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에 온 이후 지역의 상장 및 중소기업에 회계 감사, 세무, 재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기업의 회계 수준 제고에 노력했다”고 이 고문은 말했다. 대외 지원 활동도 활발히 했다. 18년의 부산상의 세무상담역을 비롯, 부산시 민자유치 심의위원, 부산국세청

과세적부 심사위원, 부산시 지방세 심의위원 등을 오랫동안 역임했다. 지역의 회계제도 개선과 발전, 지역민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이 고문은 3년 전 40년 근무지 삼일회계법인을 떠나 선일회계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삼일회계법인과 대구 경신회계법인을 차례로 합병했다. 회계사 60명의 중형급 법인으로 급성장했다.

“동서화합과 영호남을 아우르는 상징적 법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최대 회계법인을 목표로 수도권 회계법인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며 이 고문은 ‘지방 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 수년 내 서울 수도권에 진출, 지역과 연관성 있는 기업을 돕는 일을 모색 중이다.

“내년부터 ‘회계의 날’(10월 31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됩니다. 회계와 회계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면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가 더욱 튼튼해지고 규모도 커질 것입니다.” 이 고문은 회계에 대한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이 고문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공인회계사회 부산지회 부회장, 국제로타리 부산광역시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재정감독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부산법원 민사조정위원, BNK저축은행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올해 백수(白壽·99세)인 모친을 한 달 전 요양병원으로 모셨다는 이 고문은 “이번 훈장 수상으로 효도하게 된 것 같아 기쁩니다”라고 말했다.

동 정

박준(20회), 은탑산업훈장 수상



△박준(20회·농심 대표이사) 동문이 국내 농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대한민국 식품대전 개막일인 지난 10월 28일 식품·외식 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병수(25회), 대한민국국회의원소통대상



△서병수(25회·국회의원) 동문이 지난 11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국소통어워즈 시상식’에서 올해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소통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통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올해는 서 동문을 비롯,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수상했다.

김기정(29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김기정(29회·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



차장) 동문이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에 지난 11월 임명됐다. 김 동문은 1979년에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는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재직했다.

양성봉(29회), 진행위터웨이 부설 연구소장



△양성봉(29회·울산대 화학과 명예교수) 동문이 물 전문기업 ‘진행위터웨이’ 부설 연구소장으로 영입됐다. 지난 8월말 울산대에서 정년퇴임한 양 동문은 공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를 포함한 냄새 등 환경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장인화(35회), 자랑스러운 동아인상



△장인화(35회·부산시체육회 회장) 동문이 지난 10월 30일 학교법인 동아학숙 설립 및 동아대 개교 74주

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했다. 동일철강 대표이사인 장 동문은 동아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장 동문은 지난해 말 부산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 초대 민선 회장이 되었다.

정지원(35회),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지원(35회·한국거래소 이사장) 동문이 손해보험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1월 13일 손해보험업계 사장단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단독 추천한 정지원 후보를 차기 회장으로 정했다. 정 동문은 앞서 한국증권금융 대표이사도 지낸 바 있어 금융 공기업·유관단체 3곳에서 수장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정 동문은 행정고시 27회로 1986년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도영(44회), 경기도 경제기획관

△정도영(44회·전 부산시 재정경제보좌관) 동문이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신



임 경제기획관으로 임명됐다. 정 동문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부산대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9년간 근무했다.

지난해 9월부터 부산시 재정경제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저술하면서 ‘재정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홍식(30회) 화백 출판기념회 개최
45년 활동…첫 작품집 ‘바람의 붓끝’ 내놓아



박홍식(30회) 동문이 화가 경력 45년을 되돌아보는 첫 작품집 ‘바람의 붓끝’ 출판기념회를 지난 11월 7일 오후 울산 중구 ‘프리템포(Free Tempo)’ 커피숍에서 열었다. 울산지역에서 30회 동기생 김치영(동기회장), 박병하, 박원호 동문과 박철중(36회) 사무국장이 축하 방문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원호, 박홍식, 박병하, 김치영, 박철중 동문.

요즘 어떻게?

〈8회〉
△장혁표 = 부인상. 12월4일 부산 남천성당에서 발인.

〈20회〉
△조준섭 = 아들 11월 14일(토) 오후 1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3층 본당에서 결혼식.

〈21회〉
△강민우 = 모친상. 11월 11일 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옥동조 = 차녀 11월 17일(화) 메리움웨딩홀 캔드홀에서 결혼식.

〈24회〉
△추현무 = 모친상. 10월 25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장례식장 6호실에서 발인. △하재갑 = 차남 동국군 11월 1일(일) 해운대 센텀호텔 4층 카카오톡리웨딩홀에서 결혼식.

〈26회〉
△김태규 = 모친상. 10월 30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대원 = 빙모상. 10월 27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상호 = 11월 18일 국제신문 23면 「생(生)과 사(死)에 대한 소고(小考)」 칼럼 게재. △박재욱 = 모친상. 11월 22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양준영 = 모친상. 10월 4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무화 = 딸 명지양 12월 12일(토) 오후 1시 파라다이스호텔부산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정거돈 = 차남 재흠군 11월 15일(일) 오후 2시30분 호텔인터볼고 대구 웨딩인터빌리지에서 결혼식. △추기복 = 장남 형민군 11월 7일(토) 오후 1시 W웨딩홀 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최낙준 = 장남 채홍군 12월 5일

(토) 오후 5시 임피리얼팰리스 호텔 7층 두베홀에서 결혼식.

〈27회〉
△김수인 = 모친상. 9월 30일 분당제생병원에서 발인. △김종도 = 모친상. 11월 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 △박치호 = 장남 준협군 10월 31일(토) 오후1시30분 W웨딩시티 7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안중택 = 부친상. 11월 28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유영상 = 달리기를 짝사랑한 어느 이비인후과 의사의 자전적 이야기 ‘의미 없는 달리기 : 기’ 출간. △이흥재 = 모친상. 10월 22일 가톨릭대학 부천성모병원 영안실에서 발인.

〈28회〉
△김순신 = 장인상. 11월15일 영천호국원에서 발인. △이철행 = 딸 화경양 12월 6일(일) 오후 1시20분 서울 여의도 웨딩여율리 5층 라온제나홀에서 결혼식. △정운현 = 모친상. 10월 28일 부산 광안리 좋은강안병원에서 발인.

〈29회〉
△고용남 = 모친상. 11월 11일 부산전문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태희 = 향우를 이긴 유방을 경영한 장량의 비책 ‘황석공 소서’ 출간. △김정규 = 빙부상. 10월 29일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동하 = 장남 창득군 11월 1일(일) 낮 12시10분 aT포레 5층 그랜드홀에서 결혼식. △박용수 = 모친상. 10월 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송희태 = ‘제니스마린 부동산’ 신장개업.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두산위브 더제니스 상가 143호. t.051-747-0804. △이영재 = 딸 상미양 11월 1일(일) 낮 12시30분 한국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결혼식. △전병철 = 딸 재연양 11월 14일(토) 오후 6시 엘타워6층 그레이스홀에서 결혼식. △전현수 = ‘2020년 불교 심리 치료(초기 불교 교육의 지혜)’출간. △정운수 = 모친상. 10월 28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광호 = 장녀 소형양 11월 28일(토) 낮 12시30분 목화웨딩컨벤션 15층 벨리스홀에서 결혼식. △김영훈 = 장남 중엽군 11월 28일(토) 오후 4시 시그니엘서울 76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김정태 = 모친상. 10월 28일 부천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서강태 = 장남 한범군 12월 19일(토) 오전 11시 롯데갤러리움 웨딩홀 1층 단독홀에서 결혼식. △임영수 = 차녀 수현양 10월 18일(일) 오후 2시30분 서울 그랜드컨벤션 2층 사브리나홀에서 결혼식. △정기룡 = 장남 회운군 12월 5일(토) 낮 12시30분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하성임 = 장남 형직군 11월 28일(토) 오후 1시40분 그랜드머큐어 엠베서더 창원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31회〉
△박성룡 = 모친상. 10월 25일 영도 구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추현승 = 모친상. 10월 25일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병연 = 딸 미향양 9월 20일(일) 오후6시 대전 The BMK 컨벤션웨딩홀에서 결혼식. △최재식 = 장녀 문선양 11월 15일(일) 오전11시 부산 W웨딩홀에서 결혼식.

〈33회〉
△김종욱 = 차남 경준군 12월 13일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대열(5회) = 9월 13일 작고
- ▶조관승(6회) = 10월 26일 작고
- ▶배효룡(10회) = 10월 12일 작고
- ▶양희복(10회) = 10월 27일 작고
- ▶김재환(11회) = 11월 11일 작고
- ▶임창완(12회) = 7월 20일 작고
- ▶신하근(13회) = 11월 15일 작고
- ▶고만수(14회) = 11월 8일 작고
- ▶여성열(17회) = 10월 11일 작고
- ▶정해전(17회) = 10월 19일 작고
- ▶남병근(19회) = 10월 17일 작고
- ▶최경석(19회) = 10월 11일 작고
- ▶김중원(20회) = 11월 3일 작고
- ▶김성관(26회) = 10월 18일 작고
- ▶이우용(26회) = 11월 5일 작고
- ▶장경모(29회) = 10월 31일 작고
- ▶정진환(29회) = 10월 29일 작고

(일) 오후1시30분 서면 헤리움 웨딩홀 2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김재도 = 차녀 보림양 11월 15일(일) 서울 엘리에나호텔 임페리얼홀 3층에서 결혼식. △박종욱 = 장남 진우군 11월 21일(토) 대구 라온제나호텔 컨벤션홀 7층에서 결혼식. △신봉섭 = 아들 재명군 10월 24일(토) 서울 공군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

〈34회〉
△김철영 = 딸 11월 7일(토) 오전 11시 국제신문사 빌딩 K웨딩홀 4층에서 결혼식. △이재국 = 차녀 12월 12일(토) 낮 12시30분 헤리움웨딩 더샵 센트럴스타 E동2층에서 결혼식. △최승용 = 부친상. 11월 6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41회〉
△여근섭 = GL갤러리에서 12월 15~30일 10번째 개인전.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67.

동창회보 구독료 선납부자 명단

- 6회 임경택 2021년

8회 안종열 2021년

11회 김광석 최창욱 2021년

12회 김장욱 김종련 2021년

13회 박홍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4회 이길미 2021년

15회 박영무 박찬호 2021년, 임영길 2022년

16회 민신웅 2023년

18회 갈영수 허만조 2021년, 박기주 박석도 2022년, 홍우재 2024년

19회 김덕수 김인선 2021년

20회 오기현 유근준 2021년

21회 강영도 2021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연국 2022년, 이정욱 2021년

24회 김만복 한상렬 2021년

25회 김연석 2022년, 김진우 문재인 서병수 송동준 이우석 한현교 허만탁 2021년, 임창운 2051년

26회 강익규 박경수 이정곤 2021년

27회 문성기 이원호 2021년

28회 박성권 임상규 2021년, 안풍 2022년,
- 하재근 2028년

29회 박희규 2021년

30회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최진곤 2021년

31회 민중현 2021년

32회 송기수 임채균 최춘호 2021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6회 김병국 이한호 2021년

37회 서동욱 2021년

38회 권두성 2029년, 김경곤 주영록 2021년

39회 박상환 정용국 2021년

42회 정용중 2021년

45회 최재근 2021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49회 장민건 2021년

50회 박중현 2028년

51회 신현식 20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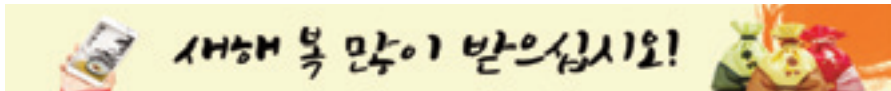
53회 문희규 전세일 2021년

54회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손희원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정준섭 제재철 조중완 2021년, 엄도용 2024년

69회 정민기 2023년

2020년 구독료 납부현황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2	0	0%	20	171	69	40%	39	118	63	53%
2	1	0	0%	21	184	105	57%	40	117	43	37%
3	11	6	55%	22	186	97	52%	41	91	47	52%
4	19	7	37%	23	219	93	42%	42	53	21	40%
5	27	11	41%	24	236	116	49%	43	86	33	38%
6	38	19	50%	25	359	196	55%	44	73	35	48%
7	50	22	44%	26	230	109	47%	45	38	43	113%
8	59	27	46%	27	214	83	39%	46	54	36	67%
9	58	24	41%	28	199	91	46%	47	60	29	48%
10	88	42	48%	29	233	117	50%	48	13	9	69%
11	124	63	51%	30	242	113	47%	49	65	10	15%
12	163	78	48%	31	132	89	67%	50	68	45	66%
13	165	91	55%	32	120	44	37%	51	121	16	13%
14	136	68	50%	33	138	62	45%	52	156	42	27%
15	142	77	54%	34	69	36	52%	53	43	22	51%
16	204	87	43%	35	128	54	42%	54	58	69	119%
17	134	66	49%	36	136	65	48%	55	11	5	45%
18	205	91	44%	37	83	41	49%	56	10	2	20%
19	184	104	57%	38	96	45	47%	57이후	32	12	38%
Sub-total(1)		883명		Sub-total(2)		1,625명		Sub-total(3)		582명	
미상		9명		목표인원		4,000명		구독료납부인원		3,099명	
총발송부수		6,452명									



2020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 <총 3,099명> (2020. 11. 30.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0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53-6722-04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박종찬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3회(6명)
노관택 송두호 신현익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7명)
김경식 김희수 박흥기 양종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11명)
김인택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홍관식

6회(19명)
김상엽 김중철 김태환 박기복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강운 이희문
임경택 정건용 정경규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최석원

7회(22명)
강병희 김갑성 김명관 김삼현 김용우 김중순
김진홍 김태배 김호용 노상석 노해규 박영섭
박환배 배종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이동우
임성규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27명)
김동훈 김봉길 김상식 김영길 김영철 김영환
김재범 문창학 박재범 박희옥 안종열 엄덕양
이상목 이종택 이준혁 이창규 이춘기 이현문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전영배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홍기성

9회(24명)
김경희 김기관 김기학 김영국 김 청 김태영
박남수 박영복 박화철 서해량 신용의 안규현
유규열 유병철 윤일명 이영규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정해돈 조이호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10회(42명)
강희운 김기호 김동민 김상규 김상태 김선동
김성규 김정학 김창덕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칠민 배길순 서정철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윤재모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순 이정호 이상복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무길 정종만 정 훈 조길수 조상진
조종제 진 강 최병도 최해만 최형백 하영수

11회(63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광태엽 권병용 김광석
김기주 김병기 김삼진 김성규 김수정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향곤 남호현 문정오 박관호 박성우
박수경 박창순 박태오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자윤 손봉길 심재룡 안강태 양수택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균우
이상태 이상훈 이성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조양현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성욱 최창욱 하중선

12회(78명)
강본순 강수현 강창수 구진웅 구창희 권시길
김기수 김가인 김동열 김명희 김봉근 김봉하
김부생 김부한 김상렬 김석근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장욱 김중련 김종일 김지희
김현주 김홍래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윤 박용문 박정윤 박종정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백응권 변동만 서병기 손제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안용득 엄태섭 오세경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언 이원희 이원우 이재원 이현달 이환철
이희동 임상원 임창완 장동석 장일근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최병훈 최신일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91명)
고송구 고시준 구덕건 구문광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만철 김무조 김민철 김상치

김신부 김영길 김영호 김일수 김장웅 김정균
김정일 김정태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김홍석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민보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홍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정호 송문일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신하근 안성문 안준수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도 이명진 이준범
이병한 이상문 이응재 이종달 이종영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장용웅 정덕치 정로상 정문화
정영화 정은섭 정종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68명)
강주신 권 명 김덕행 김덕호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용호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충 김태희 김형수 김화옥 노수덕 류총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민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정홍 박호건 배종현 박태우 손영목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광우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재돈 이재민 이현영 이환균
이호근 이훈일 장삼식 전병선 정용마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중 황원재 황준성

15회(77명)
강무상 강무송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고석기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송평 김쌍열 김영훈
김국규 김완식 김경길 김종태 김준한 김준근
김중광 김중식 김판열 김학현 남기주 남일순
문옥륜 박영길 박영무 박찬호 박호가 배 박
배성훈 배 훈 백승진 서병길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신현영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윤휘정 이상호 이수명 이승남 이외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정석우 정행남 조규중 조영일 천신일
최대웅 최무길 최병우 최 욱 최원수 최진모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광길 허중덕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16회(87명)
강동관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용 김박일
김상웅 김상호 김성규 김양원 김영우 김용진
김일규 김경우 김정호 김 조 김종덕 김창희
김충길 김형석 김희부 노원소 문성환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박 흥
방수근 배정희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손용석 송규정 송자문 안국정
안인환 양희부 엄종원 여성국 영광해 오형철
옥무용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명수
이무근 이무영 이방소 이상대 이상남 이양근
이영재 이재룡 이종철 이철수 이청원 임승언
장사충 정우광 정원철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66명)
김정은 강정일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부근 김상천 김성락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준위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김충겸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영일 박인사
박재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 종 신희규 심문섭 안국정
양성일 어윤대 오충환 윤성욱 윤수성 이건웅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용석 장호남 전경명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조종언
차성철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형

18회(91명)
갈영수 강대원 강덕용 강성태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길제 김길출 김만근 김만수
김사권 김 석 김성건 김재창 김정래 김종금
김중철 김지호 김홍대 류중우 문재빈 문희억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민학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형 박종구 박선동 박현태 박호영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안창범 양동건 오수명 우원호 유영석 윤봉수
이국희 이영범 이영호 이일수 이재일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장기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우용 정재호 정태섭 조성재 좌경용
차명석 최 인 최재범 최진수 최희영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황광건

19회(104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강준권 김경우 김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운 김성진 김순호 김양규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용엽 김윤기 김인선 김일천 김재근
김정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찬균
김철호 김행복 남진현 노덕현 노태규 박갑진
박동호 김성채 박상갑 박성철 배무삼 배영구
서승성 석무관 선우일남 성낙출 성현진 손기
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심
재구 안경모 오일환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명환 이병구 이복춘 이상만
이상우 이성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홍 이장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홍 이춘만
임영수 임우근 임채원 임태석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범 정수남 정승수 정용식 정원찬
정영운 정태우 정태을 조성환 조재윤 진수상
최상대 최화희 한명성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홍승표 황태경 황태원

20회(69명)
강기철 강부덕 강석근 강현진 김대업 김두영
김성동 김성환 김세준 김순신 김영철 김우홍
김원갑 김일석 김정환 김조동 김종민 김찬만
김철영 김현원 김형오 김학식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상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박형준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태윤 오경석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종열 이천규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동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장하 최중경
허남균 허주환 홍순태

21회(105명)
강민우 강삼태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분능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상덕
김순일 김영삼 김완일 김용화 김우건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상기 박성렬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박지환 박형성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경진 송원경
신태원 심광섭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익희 오태규 우성건 우중득
육화원 윤대희 윤승근 이명환 이문수 이상기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정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영호 정영천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화래
조현국 조호제 조희부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수명 최원종 최은영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형 하영준 한대운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황운성 황활웅

22회(97명)
강상대 강호일 고인준 광대홍 구자룡 김광국
김대욱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수열A 김승규 김우홍 김원
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근 김정민 김종달 김
진철 김철현 김학균 김해현 김형경 남백우

노평호 류명윤 박규묘 박승목 박언표 박재규
박재상 박창섭 박행천 박호병 박흥조 배병한
배춘식 백봉주 변대석 변종호 부창전 서경덕
서향용 손연모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안영수
안진환 오세길 유인조 유재락 유재진 윤동원
윤성복 이경상 이민성 이병수 이상주 이상협
이성모 이종규 이윤제 이춘식 이홍기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경남식 정대섭
정진식 정해진 조창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완식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군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홍순욱 황영환

23회(93명)
감인홍 강구현 강창보 고용석 광상인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성호 김영기 김영철 김익곤 김정록
김종훈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문명옥 문창호 박기홍 박동현 박영호 박인권
박재호 배종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서한현 손준식 송영춘 송재섭 송충송 신경재
신동규 신언극 신해철 안경섭 안범두 안범율
오도준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부식 이상렬 이상수 이수백
이승구 이승현 이승호 이영재 이영훈 이윤석
이일원 이정욱 이준석 이충호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정용성 채행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허병상

24회(116명)
강동우 강성철 강용중 강철홍 광두희 구분열
구자용 권상철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득 김성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철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인철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섭계 문희영 박규제 박맹렬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상욱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성총기 손성호 손세영 손인수 손찬호 신병식
신강우 안상수 안형우 오철우 오덕호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룡
이상우 이상찬 이상학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이재성 이창무 임덕철 임민호 임성근 장민재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운
정동화 정명근 정무열 정수민 정수철 정영석
정용호 정윤상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건 차동렬 차한영
최동우 최승국 최현호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태창업 하 욱 하재갑 한상렬 한태운 허구연
황성동 황성훈

25회(196명)
강석철 강수명 고명식 광동원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도 김구하 김길수 김남일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동철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룡 김수석 김연석
김연신 김영명 김영수 김영익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용수 김우형 김유환
김윤수 김익수 김창형 김정학 김중국 김중만
김종윤 김종택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김철수 김태선 김형근 노태호 도재문
문재인 문창진 박기환 박건수 박경립 박광용
박동건 박명우 박문갑 박병철 박세철 박영하
박원규 박용영 박인동 박종기 박종찬 박진국
박진상 박창준 박창훈 박흥기 배기동 배대관
배동명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국 석창재 석경춘 손국영 손기천
손 원 송기현 송동준 송세경 송영근 송영기
송경규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대상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계현 양승욱 양시욱 여성조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상조 우진태 유용기
윤병환 윤순기 윤영순 윤종렬 윤태석 윤희승
이계성 이근만 이기상 이길현 이대우 이동석
이동익 이명철 이민희 이상봉 이상식 이상화

이성웅 이승욱 이신호 이신화 이우석 이인구
이종호 이찬형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한식 이홍성 임상택 임영대 임영운 장대탁
장선근 장세훈 전상태 전섭태 전영주 전영훈
정길영 정동운 정수성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지경환 차인환 최경호 최광수
최병주 최신철 최재환 최정웅 최차호 최차환
최대동 최현림 탁준길 태명산 하만진 하성룡
한석정 한준석 한현교 허만탁 허영형 허 택
황근태 황 철 황호선 황호연

26회(109명)

강수남 강영남 강영원 강의규 고석훈 구영호
권해국 김경철 김광식 김기표 김두찬 김민철
김상현 김섭권 김영섭 김영율 김원정 김일광
김재용 김정무 김정원 김종우 김주병 김채영
김태년 김태용 김택영 김 형 김호웅 남인희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권병 박동조
박두식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우 박재우 박효대 백문현 서치호
서현수 성백운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기용 신동훈 심덕수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경일 윤수현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규용
이명진 이상돈 이상원 이성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상상 이재봉 이정곤 이종욱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장인철
정국근 정영륜 정익교 정재영 정태현 정현준
조만식 조민규 지용섭 차인식 최낙준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한창학 허진호 홍순하 홍청근 홍형택
황광수

27회(83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경진 김광철
김근우 김동조 김명기 김민수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수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원보 김원용 김중도 김중욱 김중하 김지언
김진명 김태우 김학희 김호균 김항열 류재걸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영빈 박종국 박찬석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효택 백민호
변재국 서기룡 서명식 신용도 신환원 양태중
오봉인 유영상 유영호 윤석건 윤정환 윤종락
윤지한 이민부 이성득 이양현 이요섭 이원호
이인규 이재덕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 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보관 조용수 조우영 천우태 최석진 최인성
최쥔진 태기섭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91명)

강현안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김관세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부윤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윤원 김윤희 김익성 김인준 김경우 김준연
김창준 김홍국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윤철
박임철 박재훈 박국진 박찬화 배주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현석 오효석
옥상근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용남 이원철 이정권
이중대 이중만 이중환 이철행 이홍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광병 전남실 전진국 전진화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기용 한명재 한봉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117명)

강대용 강성훈 곽태섭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수B 김기영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문수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상규 김석윤
김성률 김 영 김영훈 김영휘 김용채 김용환
김인술 김재현 김경규 김경암 김종권 김종영
김종진 김철오 김태영 김태완 김호성 김홍국
문명환 박국인 박근우 박기찬 박동일 박동혁
박동홍 박명섭 박병률 박병태 박성길 박성근
박성철 박인국 박인평 박창인 박희규 배현호
백성욱 변종만 사공운곤 서석철 서영학 설동
일 손영보 손태권 손훈근 송경문 송희태 신
현수 안창홍 양승룡 양승오 오세용 윤석희
윤 옥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상진 이석조 이승호 이승훈 이정운 이준환
이진욱 이종원 이병률 임광열 임무택 임상훈
장강태 장 만 장현경 전영상 전장화 전현수
정 길 정대현 정 란 정성훈 정희용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조한욱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허광욱
현계성 현응렬 황명균 황유명

30회(113명)

강석철 구을석 권용택 김경수 김계형 김규성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상직 김성복
김순구 김승대 김영일 김영호 김영훈 김욱성
김유기 김재일 김재철 김정태 김종진 김진영
김철광 김치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문장호 박규완 박모철 박병규 박성태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진명
박철우 박준욱 박희관 배기경 변운수 서강태
서덕영 서민석 서하수 석희원 신고선 신구균
신윤원 신인기 심풍수 양문섭 오경태 옥유건
유재일 윤성덕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기환
이명건 이병구 이상필 이상기 이철호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진길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호영 장훈상 전대열 전준호 정경목
정기룡 정병호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재화 정태환 정해도 정해석 조경제 조병훈
조재성 채영재 최병철 최영규 최우철 최 욱
최진근 최진권 하규양 하재명 황철민

31회(89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광수 김기정 김병기
김시현 김영철 김영학 김정덕 김종규 김중호A
김태근 김현주 김형수 김호성 김호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마병진 문성일 민종현
박경수 박석두 박세환 박인정 박중호 박준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배정우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서정호 서태고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종식 안기수 안중수
오만일 오용환 옥치호 윤석중 윤석중 이광태
이민재 이병태 이승원 임종태 장건호 장재훈
장정철 전병구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정철수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장호
최부영 최상규 최상용 최인목 최재호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문성 한영오 허일현 홍 구 홍성수

32회(44명)

강기상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중판
김창범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운대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변문성 송기수 신국선 신명환
신한국 양문성 엄호선 오경영 오정국 우득현
윤병조 이문영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임인섭 임채균 장기호 정용수 정용운
정의주 최승찬 최중호 최춘호 최호영 허수철
허 정 황성범

33회(62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범영
김원일 김윤성 김재도 김재선 김중만 김중욱
김종인 김중현 김 철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민병현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대중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봉관 송성림 송종현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창선 이도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환 이형규 이형근 이호인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홍원 최환호 홍주성
황경원 황규태

34회(36명)

강승기 박수균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중근
김태하 김화봉 김희영 노인선 박기훈 박진영
박철용 박철호 오송대 옥재명 유승민 이강희
이상운 이성엽 이영희 이재완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35회(54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인 김동일 김선택
김세정 김영철 김우경 김우신 김홍근 나동욱
도창호 류철인 마계성 박동렬 박창석 박창제
백현수 백현호 서석근 성규원 손기철 손수범
손재수 손태섭 송호성 송화철 안중엽 안중일
안창돈 오문세 오시영 윤종호 이기석 이남기
이복근 이상환 이원우 이종찬 이창형 이춘기
이현수 이효성 임성배 임주택 임 청 장인화
정윤성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최민석 황용순

36회(65명)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A 김용진B 김재
호 김정현 김종백 김종오 김종일 김창일 김
철원 김한교 남우진 류형우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진영 백태민
서광원 성귀호 신승렬 신용덕 안재익 양석용
양호진 윤경준 이도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범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병철 정윤희 정창규 정홍원 제갈재환 지동
섭 차대일 최덕희 최상도 최승호 최태섭 한
형식

37회(41명)

강태우 김기덕 김기동 김동명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영태 김원범 김의철 김중휘 김준오
김진영 김형권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석영태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환 이호진 장원익 전인수 정익수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차기완 천용찬 최재형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태운

38회(45명)

강금성 강대식 강병균 광동열 권두성 김경근
김경태 김근홍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판준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태봉 방기대 백승온 신동훈
심재영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양배 이창호 이태훈 정영석 정인철
정재형 정준기 조석태 조수용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최휴경 한민득

39회(63명)

고봉정 광기영 김대중 김병기 김병부 김용태
김윤홍 김정남 김종엽 김진형 김천술 김태우
김형보 김호석 노성수 문기호 박근태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곤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송영호 심왕섭 안승진 안영준 여동섭 오선호
원우광 유숙정 유인기 윤동배 윤상훈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성태 이승기 이승민 이영수
이원영 이종운 이창민 이태윤 장영욱 장윤희
정순환 정연설 정영철 정용국 정우영 정의창
정진해 지홍준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준기 황영진

40회(43명)

강창지 고승성 권귀동 김근영 김동근 김병주
김종철 김창민 김춘강 김학수 문태영 문형욱
박근성 박무성 박훈재 배병훈 배진수 서재원
서정민 손균호 심 철 안경진 염철철 옥진형
우영환 이강욱 이 기 이기욱 이병완 이상백
이영철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장정욱 최용석 최치언 한수열 홍순호 황성수
황일도

41회(47명)

강병오 강석희 강 훈 김범성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 김정태 김종균 김형률 류지섭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정호 박철홍 백선민
백창봉 서백중 성중훈 성찬기 안광근 여근섭
원태용 유수호 윤성보 윤종진 이경호 이광희
이명재 이양걸 이형석 임병호 장운호 전삼록
정필상 조재봉 천성원 최영준 하병중 한정호
한창희 허종윤 허치희 홍석우 황정후

42회(21명)

강인호 권영태 김광철 김동수 김순곤 김재용
김태구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백영환 서분규
신동복 신봉준 윤영덕 이영도 이정택 정용중
정훈준 제정환 조명준

43회(33명)

강병규 강택용 구명진 김대영 김동현 김성수
김신현 김영휘 김종식 김태형 김희경 문기덕
문영찬 박경곤 박영학 박형규 방성수 백정운
윤상원 윤성진 이상현 이상춘 이상상 이정열
이진배 이호영 정영민 정효범 최용석 최한림
하영수 허재원 황준하

44회(35명)

고봉진 김동욱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 황 문형준 배봉건 안병규 안성만 우도균
윤상훈 윤승환 이동렬 이병희 이부교 이승철
이창용 임정훈 임지훈 장원준 전광렬 제정완
조영호 조진현 조창현 진성재 최현덕 최현욱
탁정환 한수성 홍광호 황인주 황재훈

45회(43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환 김상수 김성준 김중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현철 김현호 나성태
박종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효 양현욱 오문찬 오승현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정일 정상희 정중훈 조청래 조태성
차명환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기웅

46회(36명)

강남구 강성백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양수성 오영훈
윤경환 윤성근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29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성원 김응태
김재성 박성제 배준수 서정민 성상용 손호준
송창은 옥재봉 윤필호 이기문 이승택 이 일
장순재 정기주 정민호 정 신 정윤희 정준홍
정하윤 조덕만 차기혁 최경훈 최원창

48회(9명)

권태현 김중철 김주현 김춘호 김홍진 김태균
이동재 이재희 차원일

49회(10명)

고용배 김중배 김진용 배승한 이충현 장민건
장형철 정우근 최유탄 최진영

50회(45명)

강 철 구경모 구민수 구원모 권기태 김동현
김문수 김상준 김석훈 김영환 김유진 김재용
김재윤 김재호 김정현 김정희 남경협 박기태
박복열 박종현 백광선 서석진 신성진 안기범
안동운 오유준 유우진 윤종선 윤준호 이상구
이상준 이승현 이충환 이주현 장태효 전세계
정재우 차승준 채현철 최용호 최정민 최준빈
하진일 한진우

51회(16명)

감중현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박보순 반길호 신승환 신현식 오성진
이건영 정유석 정진우 최우영

52회(42명)

강민호 강영철 강재식 공영수 구순모 김도훈
김명종 김민수 김민철 김상근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류상원 박상현 박선중
박정규 변의현 변정환 성운용 심종배 양현승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승복 이해근 이호영
정길수 정상중 정안근 정현철 조영찬 조용수
최중연 최형주 한중현 허균형 허근영 허홍만

53회(22명)

강덕천 광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민걸
김상욱 문희규 박성영 박우진 박정진 백홍상
송승윤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최동환
하병오 한동인 황선경 황종민

54회(69명)

강민승 강인구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고 훈
권태호 김규완 김대준 김대진 김병조 김상훈
김승택 김영빈 김주량 김진욱 김치현 김태규
김태환 남승태 남준현 류종택 문영섭 민병철
박경환 박기홍 박기철 박성배 박신우 박준영
박종원 서영호 서정호 석강훈 선대규 손태준
손희원 송지홍 심재훈 안철민 양현진 양형욱
엄도용 엄태환 이도준 이동하 이성훈 이상래
이재진 이재필 이재하 이정수 이준일 이찬희
이치훈 이형민 이홍진 임길환 임성호 임창섭
장성민 장진영 전명진 정준섭 정재화 제재철
조정우 조종완 한병제

55회(5명)

김태련 이육한 이항림 최성원 최범준

56회(2명) 손정현 임재청

58회(1명) 김현윤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1명)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7회(1명) 김건우

78회(1명) 홍경민

79회(2명) 김민규 박준혁

기수 & 이름 확인불명 9명





주식회사 용마홀딩스

龍馬

YONGMA HOLDINGS

법인등록번호 191411-0014927

부동산
개발

분양
대행

광고
대행

인력
대행

20회 강부덕

주식회사 용마홀딩스 고문
용마동아포럼 회장
용마영도회 회장
영아일랜드 회장

대표이사 강줄기

주식회사 용마홀딩스 대표

